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여호와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1545-1598)¹

Sacred Hero, Admiral Yi Sun-shin(1545-1598) Read Through the
Lens of “Yahweh’s Holy War” in the Hebrew Bible

■ 김진섭 Kim, Jin Sup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B.A.)
- 고려신학대학원(M.Div.)
- 미국 Covenant 신학대학원(구약학 전공, Th.M.)
- 미국 Dropsie 대학원(고대근동학 전공, M.A., Ph.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
-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



들어가면서

1591년 일본 전국을 평정한 도요토미(豊臣秀吉)가 7년간의 임진왜란(1592-1598) 동안 조선에 투입한 왜군이 약 20만 명이었고, 제1진 고시니(小西行長) 부대가 부산(1592. 4. 14)을 침공한 이래 서울(5. 2), 평양(6. 13)을 위협하는 파죽지세의 북상에 조선은 거의 무방비상태였으나, 결국 11개월 만에 병력의 65.8%를 상실하고 전면 철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별히

제2차 침공(정유재란, 1596-1597)에 약 14만 1천5백 명과 수군 600여 척에 조선 병력은 약 3만뿐이었던 위기를 고려해 볼 때, 본 논고는 한국사에 가장 암울하고 위대한 시기에 일본이 약 7년 동안 23번 한국을 침략하였고 한국의 지상군은 패전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신비롭고 탁월한 인격과 삶의 모본으로 육군 15년과 함께 특별히 수군 7년의 군 생활 중에 23회 해전에 전승(全勝)한 ‘세계사에 최상의 명장’ 이요,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 나님이 보내신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의 생애(1545. 4. 28-1598. 12. 16)를 히브리성경²을 중심으로 “여호와와의 전쟁신학”³이란 안경⁴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충무공⁵ 이순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의 ‘어떻게’란 단어에는 우리가 어떤 ‘안경’(관점, perspective)을 끼고 이순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복잡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개인적으로나 특별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한 시대로 끝날 수 없는 그 신비한 인격과 공헌에 대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성웅 이순신을 어떤 안경을 끼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은 최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⁶

첫째, 이순신 자신의 일기에 근거하여, 자신의 평전을 첨가한 남천우의 『평역 이순신 자서전』(미다스북스, 2007)과 노승석의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동아일보사, 2006)이 있다.

¹ 본 논고는 지난 2005년 봄에 다시 불거진 ‘독도’와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말미암아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인의 ‘끓는 냄비’ 근성에 의해 일시적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동기과, 때를 같이 하여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KBS1TV 매주 토-일 밤 9시30분)이 100회 방영을 목표로 2004년 9월 4일에 시작되어 2005년 5월 15일에 제74회를 맞으면서 시청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연합신문」, 2005년 5월 25일 7월 5일까지 7회 연속 게재된 김진섭, “성경으로 보는 성웅 이순신”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둘째, 이순신의 병법에 관하여, 7가지 병법 원리[병력집중, 화력집중, 주도권 확보, 정보획득, 지리이용, 만전, 선승구전(先勝求戰)]을 연구한 임원빈의 『이순신 병법을 논한다』(신서원, 2005)와 손자병법과 이순신 연구의 독보적 존재인 예비역대령이자 신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노병천의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21세기군사연구소, 2005)와 『이순신대학 불쾌학과: 명량

대첩』(책발, 2011)을 추천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사실보다는 문학적 형상화에 힘입은 장편소설로서, 1908년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발표한(5월 2일-8월 18일) 『리순신전』부터 북한의 장편소설인 김현규의 『리순신 장군』(북한문예출판사, 1990)과 김훈의 2권으로 집필되어 남한 인구 4,500만 명 중 1,000만 명에 가까운 독자를 확보한 『칼의 노래』(생각의나무, 2003)를 거쳐, 텔레비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100부작)의 대본으로 전 8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집필된

² 구약성경을 ‘히브리 성경’(Hebrew Bible)이라 표현하는 국제적 관행을 이 논고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한글의 ‘문화어’(Kulturwort)로 고정된 ‘구약’(옛 언약), ‘신약’(새 언약)이란 표현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1) 오리겐(185-284)이 ‘구약’과 ‘신약’을 각각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동일시하여, 구약성경은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의 정경이며, 신약성경은 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정경이며,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고, (2) 따라서 렘 31: 31-34에 유일하게 사용된 ‘새 언약’(베리트 하다샤)이 일차적으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역사적 문맥을 무시하여, 31절(“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이 지적하는 기존한 옛 언약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마치 부정과 불륜으로 결혼언약 증거가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으로, 복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각기 차례대로 멸망되었지만 다시 미래의 통일된 이스라엘로 부활되어 그들에게 주실(겔 37:1-14, 15-28) ‘새 출발’, ‘새 관계’로서의 ‘새 언약’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신약교회에게만 주신 것으로 알레고리 해석을 해왔으며, (3) ‘새 언약’을 헬라어 70인 역본이 ‘디아세케 카이네’로 번역한 것은 ‘언약’이란 단어인 ‘순세케’가 안고 있는 ‘동위’(순) 조약의 문제점보다는 차라리 ‘유언’(디아세케)이란 의미이지만(히 9:16-22 참조), 어디까지나 일방적(디아) 계약임을 강조하는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된 신학적 이해를 갖지 못하고 라틴어 성경이 testamentum(유언)으로 잘못 번역한 것을 영어성경이 그대로 사용하여(Testament)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4) 한국어로 성경을 가리키는 관행이 순서대로 ‘구신약성경’이 아니라 ‘신구약성경’이 되어, 마치 성경을 읽는 방식(“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는다”)이나, 선호도(“구약보다 신약을 선호한다”; 따라서 교회 출석 시 신약성경만 달랑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나, 내용상의 우월(“신약이 구약보다 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우월하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류호준, “예레미야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해설”, 『성경의 구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황창기 교수 교회(古稀) 기념 논문집』, 한국동남성경연구원 편(서울:그리심, 2012), 173-194, 특히 182-185; 김진섭, “이스라엘 신앙공동체 회복과 성령님의 사역: 이사야 44:1-5를 중심으로”, 『성경의 구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43-172, 특히 146-153.

³ 출판연대를 따른 구약성경의 전쟁신학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조,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atrick D. Mille Jr., The Divine Warrior in Early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 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Millard C. Lind, Yahweh Is a Warrior: The Theology of Warfare in Ancient Israel (Schottsdale, PA: Herald, 1980); Peter C.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기독교와 전쟁문제』, 김갑동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5); Carola Kloos, Yahweh's Combat with the Sea (Leiden, London: E. J. Brill, 1986);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W 177: Berlin: Gruyter, 1989); Tremper Longman III and Daniel G. Reid, God Is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거룩한 용사』, 성종현 역(서울: 솔로몬, 1996); Harold Wayne Ballard, The Divine Warrior Motif in the Psalms (North Richland Hills, TX: Bibal Dissertation Series, 1999); Richard Nysse, “Yahweh is a Warrior,” Word and World 7 (1989), 192-201; Herzog Chaim and Gichon Mordechai, Battles of the Bible (London Stackpole Books, Pennsylvania, 1997); John A. Wood, Perspectives on War in the Bible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John Day, God's Conflict with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Brad Kelle, Ancient Israel at War 853-586 BC (Essential Histories 67: London: Osprey Publishing, 2007); Heath A. Thomas, Jeremy Evans and Paul Copen eds. Holy War in the Bible: Christian Morality and an Old Testament Proble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3). 한글 저서로서는 윤용진, 『여호와와 전쟁신학』(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0); 노병천, 『성경의 전쟁사』(서울: 줍은문, 1997); 『하나님 병법』(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성경적 승리학』(서울: 양서각, 2006); 『구약전쟁의 전략과 리더십』(서울: 대서, 2008).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황금가지, 2004)이 있다.

넷째, 장편서사시(epic)로서 민족 최대의 위기였던 이순신의 임진왜란 7년 전쟁(1592-1598)과 유사한, ‘생존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민족 수난의 위기 시대인 6·25남침(1950-1953) 동안 임진왜란 360주기에 맞춰 ‘지성’(至誠)을 이순신의 정신적 기저로 이해한 김용호의 『남해찬가』(해동문화사, 1952)가 있다. 그리고 벼슬 없는 자가 타율적 강요에 의한 형벌(선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출정명령에 대한 불복종)로서 군대를 따라 전쟁에 가는 표면적 고통의 ‘백의종군’과 원균의 모함과 아들과 어머니의 죽음 같은 내면적 고통의 ‘백의종군’을 이순신의 정신적 기저로 삼고, 이순신을 선험적인 ‘하나님 의식’을 가진 신앙인으로 보아 그의 구국일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연유한다고 노래하는 목사요 신학교수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시상을 전개한 한국문학 최대의 장편 서사시인 김성영의 『백의종군』(창조문예사, 1978년 초판의 2010년 완전개정)이 있다.

흥미롭게도 2004년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다. 첫째, 국가흥망의 위기 속에서 지도층이 중심을 잃고 표류할 때에도 흔들림 없는 애국심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신념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구습을 완전히 타파하여 철저한 준비와 개혁 의지로 부하들을 이끌던 이순신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지도자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시대의 무한 국가경쟁과 경제전쟁의 위협 앞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의 본이 되기 때문이다.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칠천량(1597. 7. 16) 전투에서 대패하여 단 12척의 배만 남긴 참담한 현실과 설상가상으로 수군을 없앴다는 조정의 위협천만한 공포 앞에서 ‘상유십이’(尙有十二, “오히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를 외치며, 13척의 배로 130여 척 적선의 섬멸을 부하장병에게 엄명하며 격려하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반드시 죽으려하면 곧 사는 것이요, 반드시 살려 하면 곧 죽는 것이다”), ‘일부당정족구천부’(一夫當 逕 足懼千夫, “한 사내가 길목을 지키면 천 사나를 떨게 하기에 족하다”)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실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셋째, 당쟁과 국론분열, 무지한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은 슬한 인재들의 결집을 방해하여 임진왜란을 자초했다는 역사적 정황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유사점이 많아 과거의 역사로 오늘의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⁴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의 출간이 던진 성경해석학의 긍정적 파장으로서 다양한 ‘관점’을 따른 성경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개괄적인 논의를 위해 Vern S. Poythress, *Symphonic Theology: the Valid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Theology* (Philipsburg: P & R Publishing, 1987)와 동일 저자의 *Science and Hermeneutics: Implications of Scientific Metho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Foundations of Contemporary Interpretation v. 6; Grand Rapids: Zondervan, 1988)을 보라. Poythress는 전통적 서구신학이 주로 죄책(guilt)의 질문에 대한 해답의 의미로 오랫동안 구조화되어 온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에서 벗어나, 이제 현대 세속주의자들의 관심사인 ‘삶의 의미’와 관련된 ‘가족신학’(familial theology)이나, 제3세계의 부족문화의 주관심사인 ‘악령의 세력을 이기는 법’ 등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면서 이런 연구는 로마서 7장, 시편 23편, 사무엘상 17장 등의 알려진 본문의 새로운 진리 발견이 가능하다고 결론 맺는다(그의 책, 160-161). 구약성경의 경우, (1) ‘구약의 성령님’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김진섭, “구약의 성령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성령: 그 말씀』(서울: 두란노, 2010, 4월호), 22-41; (2) ‘구약의 치유신학’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Michael L. Brown, *Israel Divine Heale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김진섭 역, 『구약의 치유신학 개론』(서울: 대서, 2010); (3) ‘구약의 신현(theophany)’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Jeffrey J. Nicholas, *God at Sinai* (Grand Rapids: Zondervan, 1995), 김진섭 역, 『시내 산의 하나님』(서울: 이레서원, 2009); (4) ‘구약의 선교신학’이란 관점에서 읽기 위해, 참조. 김진섭, ‘구약의 선교학적 읽기’, 『기독교신학저널』(2005 봄), 7-34; ‘구약의 선교학적 읽기(2)’, 『기독교신학저널』(2005 가을), 23-62.

⁵ 순조 후 45년이 지나 인조 21년(1643)에 익호(諡號)를 ‘충무’(忠武)라 불렀다.

⁶ 필자는 이순신 연구방법론에 대해 해군사관학교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최영호, “이순신 ‘장편서사시’의 문학사적 의의-김용호의 『남해찬가』와 김성영의 『백의종군』을 중심으로”, 김성영, 『백의종군』(서울: 창조문예사, 1978, 2010 완전개정), 430-501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

주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은 결코 패배한 전쟁이 아니며 침략자 일본의 의지를 꺾고 조국을 지킨 승리의 전쟁이며, 세 번의 패적과 두 번의 백의종군에 상관없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일사각오로 승리한 이순신은 오늘 의 한국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기획 의도는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인 성삼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점에서의 역사해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필자는 이 논고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적 안경을 끼고 이순신을 조명한 노병천과 김성영의 작품들을 참조하면서,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을 끼고 성웅 이순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영도하는 해군이 첫 승리를 거둔 옥포대첩(1592. 5. 7)을 시작으로, 그 유명한 한산대첩(1592. 7. 8)과 결정적 승리인 명량대첩(1597. 9. 16) 및 패주하는 일본 해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노량 일대의 관음포(현 남해대교)에서 이순신 장군이 순직하는 노량대첩(1598. 11. 19)에 이르는 4대 대첩을 오늘의 한국과 한국교회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특별한 섭리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후론하겠지만, 임진왜란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이며, 오늘의 한국을 가능케 한 명량(울돌목)해전(1597. 9. 16)에 대하여 지난 400년간 잘못 해석되어 온 허와 실을 최고의 군사전략가다운 ‘철저성과 정확성’으로 각종 문헌, 해상지도, 사진, 도면, 통계, 수치, 이론, 병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병법임을 드러낸 노병천의 공헌은 크다.⁷ 동시에 순국 전날(음력 11월 18일) 밤 배 위에서 드린 장군의 최후 기도인 ‘차수약제 사랑무감’ (此讐若除 死郎無憾,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도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나,⁸ 장군이 남긴 최

후의 한 마디인 ‘전방급 신물언아사’ (戰方急 慎勿言我死,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하나인 “다 이루었다”와 연계하는 김성영의 영적 통찰은⁹ 흥미롭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고에서 히브리 성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는 이순신을 고찰하여,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이전인지라,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의 3중 노예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엡 2:1-3) 한국을 세계선교 사명을 위해 쓰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반은총적 역사가 성웅 이순신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핌으로, 하물며 21세기를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회복해야 할 인격적 성화의 증거와 역사적 복음정신과 남북통일과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선교 사명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와의 전쟁신학

익명의 한 노르웨이 통계학자는 지난 5,560년 동안에 무려 14,530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연평균 2.6회의 전쟁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전쟁의 현실을 보면,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에서 1945년에서 1990년까지 2,304주 가운데 단 3주만이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⁰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역사적 진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무려 130여 개의 전쟁¹¹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삼상 17:47; 대하

⁸ 김성영, 『백의종군』, 368-369, 399-400.

⁹ Ibid., 375, 401.

¹⁰ 노병천, 『구약전쟁의 전략과 리더십』 (서울:대서, 2008), 13-14.

⁷ 노병천, “5 명량대첩”, 『이순신』, 107-248.

20:15),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진리를 증언한다.¹²

성경 1,189장 전체는 하나님의 우주·인간 창조(창 1-2장), 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 하나님의 새 우주·인간 완성(계 21-22장)에 대한 메타 내러티브이다.

1) 하나님의 우주·인간 창조 내러티브(창 1-2장)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왕국의 심장부인 신전·왕궁의 ‘지적 설계’도면(“그가 창조하시니라”의 히브리어 ‘바라’는 ‘잘라서 모양을 내다’가 그 기본의 미이다)을 따른 건축 진행과정에서 목표를 향해 일하시며, 그것을 계획대로 하루 단위(“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째 날이니라”)의 부분 검사필증(“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으로 마침내 완성하시고(“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안식하시며(“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결과에 복 주시며 만족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신전·왕궁의 실례로서, 그 성전의 관리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왕·선지자·제사장으로서 묘사되며, 그 왕국 건설에 관련된 노동·안식·결혼이란 문화적 제도가 소개된다.

¹¹ Ibid., 32. 노병천은 이 책에서 성경에 나타난 130여 개의 전쟁 중에서 전략과 리더십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 10개를 엄선했다: (1) 족장시대의 전쟁인 싯딤 골짜기 전쟁, 아브람의 단 전쟁 (2) 출애굽 시대의 전쟁인 르비딤 전쟁, 호르마 전쟁 (3) 가나안 정복 시대의 전쟁인 여리고 성 전쟁, 아이 성 전쟁 (4) 사사 시대의 전쟁인 드보라의 전쟁, 기드온의 전쟁 (5) 왕국 시대의 전쟁인 다윗의 전쟁, 여호사밈의 전쟁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전략과 리더십을 논하고 있다.

¹² 창조, 삼상 2:10, 14:6; 대하 14:11, 20:15; 시 33:16-22, 44:6-7; 전 9:11; 호 1:7; 속 46.

성경은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헷사마임 베하아레쯔, ‘그 하늘들과 그 땅’)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우주창조의 대명제와 요약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2:3) “천지(‘그 하늘들과 그 땅’)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2:1)는 결론 부분(2:1-3)으로 반복 마무리된다. 여기 ‘만물’ (췌바암)은 ‘그들의(암) 군대(췌바)’란 뜻으로, ‘그들’이란 대명사는 앞에 사용된 ‘천지’를 가리킨다. ‘천지’는 오늘날의 ‘우주’를 가리키는 고대근동의 관용어로서, 수메르어 ‘안-키’ (하늘-땅), 아카드어 ‘샤무 우 에르 췌투’ (하늘들과 땅), 히브리어 ‘헷사마임 베하아레쯔’가 그 의미 동등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성경 초두의 우주창조 기사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만군(萬軍)의 하나님/여호와’ (아도나이/엘로헤 췌바오트-이 표현은 삼상 1:3에서 말 4:3까지 274회 사용)께서 하나님 은혜왕국의 건설·보존·완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군대이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다(시 24:10).

창세기 1:1-2:3의 우주창조 기사의 자매편 격인 하나님 찬양시(시 8편; 19:1-6, 29편, 65:9-13, 104편; 암 4:13; 5:8-9; 9:5-6)는 다시금 군대로서의 우주는 대 합창 군악단으로 묘사된다. 밤하늘을 단장하시는 성령님 안에서(시 33:6; 사 40:13, 26), ‘하늘의 군대’ (삿 5:20; 시 33:6; 사 40:26; 느 9:6)인 별들의 ‘합창’ (욥 38:7; 시 148:3; 눅 2:13)을 듣는다. 현대 물리화학의 이론이 빛-소리-열의 자유전환을 설명하거나, 일등별로부터 팔등별의 한밤의 하늘은 팔도 화음계의 웅장한 대 자연 교향곡을 만끽하게 한다. 계명성 사탄의 타락(비교: 사 14:12-15; 겔 28:13-15)과 인간의 타락(참조: 우주에 가장 결맞지 않은 죄인에 대한 시 104:35) 아래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롬 8:22)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구원의 은총을 우주와 함께 합창하는 것이다. 또한 천지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적 삶을 판단하는 증인으로 심판대에 등장한다(신 4:26, 32:1; 사 1:2; 미 6:2; 시 50:4).

2) 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내러티브(창 3장-계 20장)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창 2:16-17)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범죄-타락-사망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왕 노릇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롬 5:12)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동시에, ‘아담 언약’ (창 3:15)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계획의 ‘최초 복음’ (proto-evangelium)이 어떻게 구원-성화-영생으로 성취되어 갔는지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원수 관계를 내가 설정한다”(베에바 이쉬트)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계획은 ‘뱀과 여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그리고 여자의 씨와 뱀 자체 사이의 3중 원수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왕국과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의 원수관계로 대치 발전하여 온 인류역사 전체를 조망한다.

(1) 뱀과 여자의 원수관계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고 넘어갔기 때문이요(창 3:15; 고후 11:3; 딤후 2:14), 구속역사의 중심점인 ‘그’ (후)는 ‘여자의 씨’로 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그 여자’ (하잇사)는 하와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정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귀하게 사용된 모든 여성들을 가리키며,¹⁴ ‘여자의 씨인 그’의 출생을 막는 사탄과의 원수관계라는 긴장과 갈등의 맥락에서 성경의 모든 여성 인물사를 조명해야 할 것이다.

¹³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 (구나이)라 부르신 것은(요 2:4, 19:26) 유례 없는 독특한 사용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아내(고전 7:16; 비교: 복수형 ‘구나이케스’, 엡 5:22, 24; 골 3:18; 뱀전 3:1)나 일반 여성(마 15:28; 눅 13:12, 22:57; 요 4:21, 8:10; 20:13, 15)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¹⁴ 창세기 3장 20절의 ‘모든 산 자의 어머니’와 디모데전서 2:15의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본문은 ‘개인과 전체’ (corporeal Personality)라는 신학적 맥락에서 이해된다.

(2)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의 원수관계

‘너’ (앗타)가 지칭하는 존재가 뱀 배후의 마귀임을 보여 준다. 구속역사의 시작부터 벌써 ‘너의 씨’인 가인이 ‘그녀의 씨’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에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왔으며(요일 3:12), 악한 자는 곧 마귀임을 알 수 있다.¹⁵ 육신적으로는 둘 다 하와의 씨였으나, 영적으로 가인은 생래적 죄인이요(롬 5:12),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롬 9:22)이며, 그와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자연인이요(창 4:11-24; 엡 2:15-16), ‘독사, 악한 자, 마귀의 자식’이었다(마 3:7, 13:38, 23:33; 눅 3:7; 요 8:44; 요일 3:10).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요(마 23:35; 히 11:4), ‘영광 받기로 예비 된 공홀의 그릇’이며(롬 9:23), 아벨을 대신한 셋과 그 후손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중생인이요(창 4:25-26, 12:8; 롬 10:8-15), 천국과 하나님의 자식이다(마 13:38; 롬 8:14-17; 요일 3:10).

이 삼중 원수관계의 중심점에 여자의 임신과 출산이 놓여 있어, 하나님의 은혜왕국 건설을 위한 자녀 출산의 복과 ‘여자의 씨’와 ‘뱀의 씨’의 대결이란 긴장을 동시에 보여 준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리하여 마귀의 씨로서의 가인의 후손과 여자의 씨로서의 아벨·셋 후손의 원수관계의 양대 구도 어느 하나에 속하여서, 타락하는 자는 그대로 타락하고, 구원받는 자는 그대로 구원받는(계 22:11)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역사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롬 9장 참조).¹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실체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 인물의 평가는 그들의 덕행을 칭송하는 행위 구원적 교훈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본

¹⁵ “악한 자” (포네로스)란 단어는 신약에 27회 사용되는 바, 요한일서에서는 모두 사탄을 가리키는 별칭이다(요일 2:13-14, 3:12, 5:18-19; 비교: 마 6:13, 12:35, 13:19, 38; 요 17:15; 엡 6:16; 살후 3:3). 흥미로운 것은 ‘원수’ (에크쓰로스) 역시 사탄을 지칭한다(마 13:39; 눅 10:18-19).

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적으로 산송장 같은 마귀의 씨, 가인의 후손 같은 그들을 “궁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아벨 · 셋의 후손으로 선택하여(엡 2:1-10), 그들의 모든 연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는”(롬 5:20-21)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다(엡 1:3, 6, 14).¹⁷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건설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결혼제도(창 2:24-25)는 항존적인 창조규례(creation ordinance)이다. 한 개인의 육신적 자녀가 영적으로 가인 계통과 아벨 · 셋 계통 중 어느 후손이 되는가의 질문은 현

¹⁶ 가인 계열과 아벨 · 셋 계열의 투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들(시 73:1; 마 6:32; 롬 9:6-13 등), 선민과 이방인, 예루살렘(시온)과 바벨론(사 21:9; 렘 51장, 단 1:1; 수 2:7; 미 4:10; 뱀전 5:13; 계 14:8, 17:5, 18 등), ‘하나님, 빛의 왕국, 자녀’와 대조된 ‘사탄, 어두움의 왕국, 자녀’ : 순종하는 자식(뱀전 1:14)과 대조된 불순종의 아들들(엡 2:2, 5:6; 딤후 3:3) 등의 용어들과 ‘악한 자, 원수’ 개념과 관련된 모든 연어(collocation)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예: 짜르, 조레르, 소내, 쿼, 라사 등).

구약에 5회 사용된 ‘원수관계’ [에바: 창 3:15; 민 35:21(2회); 겔 25:15, 35:5; 참조, 에크쓰라: 눅 23:12; 롬 8:7; 갈 5:10; 엡 2:14, 16]라는 단어는 283회 사용된 동사 아야브(‘미워하다’)에서 파생한 것이다. 동사 아야브의 기본형(Qal) 분사인 오에브(‘원수’)는 282회 사용되는 바, 이스라엘의 원수(126회),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 개인의 원수(48회; 그중 다윗이 25회) 및 여호와와의 원수(25회)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여호와와의 원수임을 밝히는 본문들과(출 15:6, 9; 삼상 30:26; 삼하 12:14 등), 이스라엘의 총사령관(Divine Warrior)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장 서서(출 14:21), 요단 강(수 3:16), 기손 강(삿 5:20)), 그 원수들과 싸우시는 ‘여호와와의 전쟁’ (출 15:3, 4; 민 10:35; 시 24:8; 사 42:13; 습 3:17) 및 ‘진멸’ (헤렐, 신 7:26, 13:17; 수 6:17, 7:1, 11, 12, 15, 22:20; 삼상 15:21; 대상 2:7 등) 신학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¹⁷ 중생자의 신분의 근본 변화를 요약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포테……눈 데: 롬 11:30; 엡 5:8; 뱀전 2:10)을 참조하라. 비교: ‘전에는, 이제는’ (갈 1:23; 뱀전 2:25); ‘전에는’ (엡 2:3; 딤후 1:13; 딤후 3:3); ‘이제는’ (롬 6:19, 21, 22, 7:6; 갈 2:20, 4:9; 엡 2:13; 골 3:8).

실적으로 중생한 신자의 불신 결혼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항존적인 문화제도(cultural institution)인 결혼을 재천명하실 때(마 19:3-9), 아담 하와가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한 선악과의 불순종에 뒤따른 결과에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 것처럼, 결혼 역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올바른 결혼(마 19:6; 참조: 잠 19:14)과 “마음의 완악”으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마 19:8) 불신 결혼 사이에서 “자기 뜻대로”(고전 7:39, 켈레이) 선택하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긴장을 본다. 히브리어에 남편, 아내란 단어가 따로 없고, 남자(이쉬)가 곧 남편으로, 여자(잇사)가 곧 아내로, 각각 문맥에 따라 번역되는 것은(창 3:6, 12, 16 등), 범죄 이전의 아담-하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상의 본보기임을 증명한다.

아담 하와의 범죄가 전 우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중에는 바로 결혼제도도 포함된다. 인류의 타락 후에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사탄 왕국의 건설과 하나님의 은혜왕국 건설의 원수관계를 가인의 계통과 아벨 · 셋 계통으로 나누어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아벨-셋 후손)이 사람의 딸들(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창 6:2) 불신 잡혼은 노아 홍수심판의 화근이 되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으신 이방 결혼과 일부다처제의 선택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서조차도 중대한 문제였다(갈 4:22-31; 창 24:3, 37, 26:34-35, 28:6, 8).

불신 결혼이 이스라엘의 구원역사에 끼친 결정적인 악영향에 대하여, 가나안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 역사적으로 유입된 경로를 밝히는 사사시대 초기에서부터 구약역사를 마감하는 포로 후시대에 이르기까지(스 9:1-2; 느 10:30) 구약의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사사시대(주전 1360-1050년) 310년 역사에 반복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삿 2:11, 3:7, 12, 4:1, 6:1, 10:6, 13:1)의 실체는 사사시대 초기부터(주전 1360-50년) 가나안 7족속 사이에 ‘거하며’ (야사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며’ (라카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나탄) 이방 (불신) 결혼이 발단이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마귀적 문화 종교의 영향이 가정에 유입되어,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삿 3:5-6, 10:6). 모든 부귀, 영화, 지력, 신앙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정치적 이유로 행한 국제적 불신 결혼들이 그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든 원인임을 성경은 상당한 지면에서 분명히 지적하며(왕상 11:1-13), 불신 결혼 때문에 당한 비참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회개했던 삼손과는(삿 16:28-31; 히 11:32) 대조적으로, 결국 그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인물의 ‘신앙의 명예 전당’ (hall of fame in faith)의 명단에서도 빠져 버리게 되었다! 바른 신앙의 결혼 교육이 이단·사이비 문제의 직·간접적 해결책 중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뱀)의 씨’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면, 뱀의 ‘씨’는 육신적이 아닌 영적 후손의 의미이다. 따라서 마귀의 ‘사자들’ (앙겔로이)¹⁸인 ‘악령, 귀신들’이라 부르는 타락한 천사들 역시 마귀의 씨로 볼 수 있고(눅 10:17-20; 엡 6:12; 계 12:7-9),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같은 논리로 여자의 후손을 돕는 의미에서(마 18:10; 눅 22:43; 히 1:14) 여자의 씨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영원한 우주적 경륜 속에서 그의 은혜의 왕국 건설에 사탄의 왕국의 건설을 허용하면서, 천상에서의 영적 전투와(단 10:2, 13; 계 12:7-9) 지상에서의 영적 전투가(엡 6:10-20) 맞물린 성경의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모든 인류 문화와 종교 역사를 조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신약에서 불신 결혼을 금하며(고전 7:39; 고후 6:14-18), 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엡 6:4; 딤후 3:15), 결혼을 준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¹⁸ 신약에 81회 사용된 ‘사자들’은 인간 심부름꾼(눅 7:24, 9:52; 약 2:25), 마귀의 사자들(마 25:41; 벧후 2:4 유 6 계 12:7, 9) 외의 73회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들, 즉 거룩한 천사들을 가리킨다(예: 눅 12:8-9, 15:10).

후 3:15), 결혼을 준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3) 너(뱀)와 그(여자의 씨)의 원수관계

뱀과 여자의 원수관계에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의 원수관계로 확장하여, 이제는 ‘너와 그’의 대표적 단독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다.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Septuagint)에서 그를 가리키는 ‘씨’ (스페르마)란 중성 명사를 받는 대명사 ‘그’를 중성(아우토) 대신에 남성(아우토스)을 사용한 것도 같은 이해이다. 제롬(Jerome)의 라틴 별게이트(Vulgate)에서는 여성 대명사(ipsa)로 번역하고, 이 전통을 따라 “오직 성경대로” (Sola Scriptura)를 주창한 종교개혁 초두부터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의 걸작품으로 번역된 성경에서(Rheims-Douay Bible, 1582년), 용감하게도 ‘마리아’로 변경되었다(‘she’ shall crush thy head, and thou shalt lie in wait for ‘her’ feet). 이것이 성당에 발견되는 마리아가 뱀을 발로 밟는 조각의 유래이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의 약속이 마침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참조. 히 2:14) 성취로 나타난 것이다. 이 원수관계는 각각 치명타를 가하려는 동일 목적에서¹⁹ 뱀은 그의 발꿈치를(비교: 창 25:26; 시 56:6), 그(메시아)는 뱀의 머리를(비교: 수 20:22-25; 삼하 22:39; 시 91:13, 110:6) 각각 공격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원시)복음이라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사탄이 치명적으로 공격한 바로 그 십자가가 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고전 15:25; 히 2:14) ‘승리의

¹⁹ 대명사 그(후)와 너(앗타)가 대조되며, “상하게 하다” (슈프)는 그(메시아)와 뱀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된다.

십자가’(골 2:14-15)가 되었기 때문이요,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 권세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롬 16:20). 이 최초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승리를 향한 점진적 구속역사의 출발점이다.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 건설에 일조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사 59:1-8) 및 전적 무능(사 59:9-16상)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홀려넘치신’(회페르페릿세우오, 롬 5:21) 은혜의 왕국 건설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제한적·불가항력적·영단번적 인류 구속의 역사(사 59:16하-21)로서,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매체’(수단의 특정성)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구원을 ‘목표’(목적의 보편성)로 창 12:3, “네 안에서 [매개] 땅의 모든 족속들(콜 미슈파호트 하이다마)이 복을 얻을 것이라”; 계 7:9-12의 긴장과 기대 속에 엮여져 간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여자의 후손’(하나님의 왕국)과 ‘뱀의 후손’(사탄의 왕국) 간의 ‘원수관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언약을 준수할 경우 이스라엘을 위하여(for Israel) 대적자들과 앞서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은 홍해(출 14:21), 아말렉 전쟁(출 17:8-16), 요단 강(수 3:16), 가나안 남방 연합전선(수 10:9-11, 12-15; 비교. 21:44), 기손 강(삿 5:19-21),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동맹군과의 전쟁(삿 7:18-22),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대하 20:21-23)과, 동시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against Israel) 싸우시는 ‘징계의 하나님’(언약케—민 10:35; 삼상 4:1-5:12)이 되셔서, 이방 대적들(민 14:43의 호르마 전쟁)이나 한재, 기근, 열병 등의 자연 재해(사 24:1-13; 미 1:3-4; 합 3:6, 8; 나 1:2-6)를 그 군대로 사용하신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을 향한 광야여정을 ‘하나님의 군대’(출 6:26, 7:4, 12:41; 민 10:14, 18, 22, 25)의 ‘전투대열’[하무썸; 출 13:18; 민 32:17; 수 1:14, 4:12; 참조. 본래 이 단어는 ‘5’(하메쉬)의 파생어로서, “앞, 뒤, 중앙, 좌, 우”의 5방향의 전투대열을 보여 준대를 갖춘 가나안 땅의 정복 ‘원정’(mili-

tary campaign)으로 이해한다.²⁰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민 14:22) 출애굽 세대는 진멸당하였으나(민 11-25장), 광야 차세대의 병역 인구조사와(민 26장) 광야 38년 반의 방황-진멸 여정을(비교: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탐까지 1년 반이 걸렸다) 가나안 정복-승리 원정으로 재해석한다(민 33장).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건너라’(아바르; 수 1:1-5:12), 정복하고 ‘가져라’(라카흐/라카드; 수 5:13-12:34), 분배하고 ‘나누라’(할라크; 수 13-21장), 지키는 ‘섬기고 지키라’(아바드……사마르; 수 22-24장) 군대의 모습이다. 에베소서에서 그려진 6개의 교회상(왕국시민, 영적 가족, 한 새사람, 성전, 몸, 부부)의 결론 역시 영적 군대이다(엡 6:10-20). 십자가로 승리하신 총사령관 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전쟁의 게릴라 소탕 전투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즐기는 것이다. 그 무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전신갑주이며, 오늘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엡 6:10)고 주 예수님은 돌격명령(battle-cry)을 내리신다. 사탄 왕국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성령님의 강력’(고후 10:4-6; 마 12:28)으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는 완성의 그날까지, ‘일당천 이당만’(신 32:30)의 개선가를 합창하는 것이다.

우주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자연현상의 위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주에 생명력과 형체를 부여하신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물론 교회사 전반에 걸쳐 지금도 ‘기이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신약(마 1장-계 20장)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세가 시작되고(히 1:2),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과 ‘땅 끝까지’

²⁰ 출애굽 세대 인구조사 후에 광야 여정의 그들을 가나안 거민을 진멸할 군대로 묘사하는 민수기에 ‘군대’(싸바)란 단어가 모세오경 90회 중 77회 사용된다.

‘모든 열방’에의 성장을 통하여 사탄의 ‘건고한 진이 파괴되고’(고후 10:4), 마침내 사탄과 불신자들이 지옥 즉 영원한 ‘유황불 뭇’에 던져지는(계 20:10, 15)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승리를 확신한다. 말세의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계 22: 11)는 인간타락과 하나님 구속의 양극화 현상, 하나님의 은혜왕국과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의 첨예한 대치를 체득하고 있다.

3) 하나님의 새 우주-인간 완성 내러티브(계 21-22장)

하나님의 새 우주-인간 완성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된다. 타락과 구속이 뒤엉킨 인류역사에서 쓰라리게 맞보던 것들-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해와 달, 밤, 등불; 눈물, 병, 사망, 애곡; 불신자, 불경건자, 불의한 자, 공포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개 같은 자, 거짓말쟁이; 속된 것, 가증한 일, 저주-은 다 없어지고, “태초에……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창 1:1, 31) 창조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계 21:11, 23)을 완성하여, 모든 피조물이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합창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하나님의 전쟁신학의 올바른 관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본다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에 진행되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승패가 결정된다는 하나님 중심의 전쟁관과, 모든 전쟁의 원인과 그 전략·전술을 성경이 명시하는 하나님의 병법과 관련 하여 해석하려는 것이다.

2.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세 가지 방식²¹

1) 하나님의 직접개입

사람의 역할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의 형태로 보인다. 실례를 본다면, 출애굽 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킨 사건(출 14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참조. 시 46:10);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완승함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대하 20:15, 17);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35).

2) 하나님의 간접개입(deus ex machina)

겉으로 사람의 모습만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숨긴 채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브람이 단 전쟁(창 14:1-16)에서 북방 네 왕들에게 사로잡혀 간 조카 롯의 보고를 접한 후 즉시 집안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하여 그 왕들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나 전략은 전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를 나누어 야밤 기습 전략을 감행한 아브람 스스로의 결단과 추격 작전으로써 모든 것을 아브람이 주관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행동력을 주신 것

²¹ 노병천, 『구약전쟁의 전략과 리더십』(서울:대서, 2008), 35-40.

이다.

에스더서 역시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하만의 먼 밀한 주도하에 유대인 대학살의 큰 위기에 직면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 반전을 이루어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출생의 통로를 계승한 역사적 부림절 사건의 배후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간접개입 방식이다. 이런 간접개입 방식 때에는 사람의 모습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자기를 위해 승전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처럼(삼상 15:12)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 쉽다. 아브람은 개선 후에 이것을 깨닫고 즉시 십일조로 그 신앙을 고백하였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와 전쟁에 개입하고 계신다. 8·15광복과 6·25전쟁이나, 이라크 전쟁과 같은 세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역사와 전쟁의 주관자로서 개입하고 계신다. 이것을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개입 방식은 종종 무시되곤 한다.

3) 하나님의 동역개입(Synergy)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서로 분담되어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보인다. 하나님이 어떤 전략적 지침을 주시면,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짜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나님이 전면에서 나서서 직접 싸워 주시기도 하고(직접개입), 그 가운데 사람도 열심히 싸우기도 한다(간접개입).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동맹군과 전쟁을 했을 때(삿 7장),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전략은 기드온의 몫이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3대로 나누어 야밤에 적진을 기습 공격하는 이러한 전략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이 만든 것이다(삿 7:16-17).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 정복 역시 하나님의 구체적 전략 지시와 여호수아와 온 백성의 전적 신뢰와 순종에 기인하였고(수 6장), 그 후에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으로 야기된 남방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그러했다(수 10장).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전력을 다하여 예루살렘 동맹군들과 싸웠지만(7, 9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들을 추격하고 쳐 죽이셨으며(10절),²²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으며” (11절), 태양과 달을 멈추어 밤새도록 초자연 조명탄을 사용하셔서(1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4절)는 결정적 승리를 주신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직접개입 방식은 표적과 기사의 형태를 보인다. 하나님의 간접개입 방식은 오직 사람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동역개입 방식은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기적이 연합된 형태로 보인다. 전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적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이다. 눈에 보이는 적은 보이는 형태와 조건에 따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루기 쉽고, 세상의 육적 전쟁이 바로 그러한 적과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다루기 어렵고 본질적인 적은 보이지 않는 적으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²³ 대체로 영적 전쟁의 차원이 바로 이렇다. 성경에 나타난 130여 전쟁이나 세계사 속의 보이는 전쟁들의 이면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²² 한글개역이나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벧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왜냐하면 원문에 ‘여호수아’는 없는 단어이며, 문맥상 여호와가 이 문장 전체 동작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는 원리를 따라, 사탄의 죄·사망의 왕국 건설을 파괴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육적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는 수준이 적용될 수 있다.²⁴

또한 구약과 제2성전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사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귀신 축출의 실례들을 통해 복음서 전반에 나타난 사탄을 대항한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치유 사역, 사탄 축출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도래시키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²⁵

3. 여호와와의 전쟁신학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일본이 만 7년 동안 23번 한국을 침략하여 한국의 지상군이 패전하는 임진왜란의 절박한 상황에서, 육군 15년과 수군 7년의 군 생활 22년 중에 4대 대첩인 옥포대첩(1592. 5. 7),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던 한산대첩(1592. 7. 8), 불과 13척으로 130여 척을 처치한 명량대첩(1597. 9. 16), 노량대첩(1598. 11. 19)을 비롯한 23회 해전에 전승(全勝)한 이순신 장군은 풍전등화

같은 정세 속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적 호국의 영웅이 된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특별 은총적 섭리요, 히브리 성경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for Israel) 싸우시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against Israel)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신학’ (Divine Warrior)을 연상하게 한다.

우리 민족사 5천 년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만 7년간의 임진왜란에 초점을 맞추고, 23회 해전 중에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던 한산도 해전(1592. 7. 8)보다는 불과 13척으로 130여 척을 상대했던 명량해전(1597. 9. 16)을 최고 압권으로 선택하여, 지난 400년간 답습된 기존해석의 근간을 뒤엎는 새 해석을 노병천은 집중적으로 시도한다.²⁶ 가장 극적인 명량대첩의 경우, 하루 네 차례 전류(轉流) 시간대의 관점에서 역류 속에 이동해 온 일본 전선이 아침 7-8시경 울돌목 출구를 통과할 때 막 순류로 바뀌어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으나, 우수영 포구 안에 정박한 몇 척 안 되는 이순신의 전선을 보는 순간 조급한 욕심으

²³ 노병천, Ibid., 40, n. 42, “손자병법 제6 허실 편에 보면, ‘지어무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최상의 군의 형태는 그 형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무형을 만들면 공격하는 자가 공격할 수 없고 방어하는 자가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스텔스(F-117) 폭격기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이라크 상공에 나타나서 막강한 화력을 퍼부었다.”

²⁴ 사탄을 그 우두머리로 하는 ‘정사와 권세’ (엡 6:12)의 21세기 실체는 ‘이슬람교’임을 밝히고 있는 영국 웨일스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한글역본인 홍성철, 『사도 바울-그의 정사와 권세』 (서울:은혜출판사, 2007)를 보라.

²⁵ 참조. 예수님의 전 사역을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는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는 평가를 세계 신학계로부터 받은 유상섭 박사의 1996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박사학위 논문을 출간한 Yoo, Sang-sub,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the Gadarene Demoniac Story (Matthew 8:28-34) (Seoul: Solomon Press, 1999).

²⁶ 노병천,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서울:21세기군사연구소, 2005), 14. 노병천에 따르면, 명량대첩의 승리요인에 대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분석은 “천혜의 길목 울돌목(명량)에서 불과 13척의 전선으로 일자진(一字陣)을 펼쳐 무려 130여 척이나 되는 일본 전선을 맞아 울돌목의 조류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 일시에 일본 전선을 격파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일본 수군의 기습공격을 당한 아군의 모든 전략은 뒤죽박죽이 되어 “처음부터 울돌목에서 싸우지 못했으며(한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좁은 목을 중심으로 일자진도 펼치지 못했으며(한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최초 접전의 몇 시간 동안은 조류나 소용돌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개, pp. 135-136] 전투를 했다” (p. 15)는 저자의 해석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전쟁신학’의 ‘동역개입 (synergy) 방식의 관점에서 탁월한 통찰이다.

로 손쉽게 양도 앞바다로 진입했기에 기습을 당한 이순신의 전선은 역류 속에 고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 순류로 바뀌면서 유리해진 이순신이 가하는 총공세와 강한 역류에 밀린 일본 전선은 “마치 좁은 병 안으로 빨려 들듯이”²⁷ 울돌목 안으로 흡인되면서 뒤따라 진입 중인 동료 전선들과 뒤엉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초래하였고, 최대치의 조류가 되는 오후 4시에 는 그 전체가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130여 회의 전쟁기사를 통하여 인류역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삼상 17:47; 대하 20:15), 모든 우주만상은 ‘전쟁의 용사’(출 15:3; 시 24:8)이신 하나님의 ‘군대’ 라면, 명량대첩에서의 기적적 승전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병법’이 있었음을 기브온 전쟁과 연계하여 생각하게 된다.²⁸ 우리 민족사 5천 년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만 7년간의 임진왜란에 초점을 맞추고, 23회 해전 중에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던 한산도 해전(1592. 7. 8)보다는 불과 13척으로 130여 척을 상대했던 명량해전(1597. 9. 16)을 최고 압권으로 선택하여, 지난 400년간 답습된 기존해석의 근간을 뒤엎는 새 해석을 집중적으로 시도한다. 명량해전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하나님의 전쟁’이요, 절묘한 역류-순류의 전류 시간대는 ‘하나님의 무기’였다고 고백할 뿐이다. 따라서 이순신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늘의 벼락’²⁹ 같은 축복이요, ‘구원자’(모쉬아; 사 3:9, 15에서 영적 암흑기에 사사의 별칭)이며, “꺼져 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

진 사명자”요,³⁰ 명량해전은 ‘구원의 해전’³¹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히브리 성경의 전쟁신학의 안경으로 본다면 이순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시편 90편의 표제)가 추구한 바로 그 덕목이었으며, 사람 중의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적 인품이었다.

1) 꿈의 사람 이순신

성웅 이순신은 ‘꿈의 사람’이었다.³² 『난중일기』에 무려 40회에 걸쳐 꿈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국운을 좌우하는 명량대첩 3일 전(1597. 9. 13)의 ‘이상한 꿈’에 뒤이어 전야(9. 15)에는 “이날 밤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고 가르쳐 주었다”(是夜神人夢告曰如此則大捷如此則取敗云)고 밝힌다. 여기 ‘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신인’이란 표현 자체는 성경이 증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

²⁷ Ibid., 200.

²⁸ 앞서 각주 22에서 살핀 대로, 기브온 전쟁(수 10:10-11)의 주어는 ‘여호와’이시며, 따라서 한글개역의 ‘여호수아가’는 원문에 없는 오역이며, 하나님의 우박이 이스라엘의 칼보다 더 위력 있는 무기였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기사에 나타난 전략·전술 분석을 위해 노병천, 『하나님 병법』, 60-134와 『구약 전쟁의 전략과 리더십』, 153-202를 보라.

²⁹ 노병천,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19. ‘벼락’의 히브리어 ‘바라크’는 가나안 하술 왕 야빈의 20년 압제에서 여선지자 겸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 ‘바라크’(삿 4장; 히 11:32-34)의 동일 단어이다. 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군대를 쳐부수고 야빈 왕을 진멸해 40년의 태평을 가져온 배후에는 드보라-바라크-야엘(헤벨의 아내)로 이어지는 용사들과 함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삿 5:20-21)라는 드보라-바라크의 승전가가 밝히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인 ‘별들’과 ‘기손 강’역시 동역(synergy)한 여호와와의 전쟁임을 연계시킨다.

³⁰ Ibid., 257.

³¹ Ibid., 17.

³² Ibid., 121-123.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에 의해 복음증거의 박해를 받던 사도 바울에게 밤 중에 ‘꿈’ (헬라어 ‘호라마’는 영어의 ‘vision’으로 번역됨)에 권면하시는 장면(행 18:9)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순신은 중대사가 있기 전에는 어김없이 꿈을 꾸었으니, 곧 전라좌수사 임명(1591. 2. 13)이나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1593. 8. 1)이 있기 전, 또한 셋째 아들 먼(蘄)이 명량해전의 복수로 가토 기요사마가 보낸 50명의 특공대와 맞서 고향 아산에서 전사하는 당일(1597. 10. 14) 새벽 2시가 그 실례이다.

잠과 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일반은혜이지만(욥 33:15; 시 73:20; 전 5:3, 7; 사 29:8), 역사의 분기점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혜로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사례를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순신이 꿈에 만난 ‘신인’(神人)은 누구인가라는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지면 관계상 상론할 수 없으나, 그랄 왕 아비멜렉(창 20:6), 수감 중인 바로의 두 신하(창 40:5), 두 차례의 바로(창 41:1, 5), 미디안 병사(삿 7:13), 두 차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단 2:1, 4:5), 동방박사(마 2:12)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꿈에 ‘시달린’(파스코, 마 27:19) 빌라도 아내 등의 불신자들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 특별한 일반은혜의 꿈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결정적인 명량대첩(9. 16)에서 배의 손실은 전혀 없고 단지 전사 2명과 경상자 3명뿐인 기적에 대하여 당일의 『난중일기』는 “적선 31 척을 쳐부수자, 적선은 물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天幸)이다”라고 모든 승리의 공을 하늘에 돌리는 겸손의 배후에는 꿈에 나타난 신인(神人)과의 연상(聯想)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³³ 그는 참으로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 “사람이 일(최선)을 다한 후 천명을 기다린다”)³⁴과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 “일의 피함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이름은 하늘에 있다”)³⁵의 자세로 하늘을 우리러본 영(靈)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곧 그리스도인들의 다음과 같은 신앙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9);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잠 16: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등이다.

2) 기도의 사람 이순신

해군사관학교가 소장한 서천기원도(誓天祈願圖)의 삽화와 함께 『난중일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마지막 전쟁이 된 노량해전 전날(1958. 11. 18), “자정에 배 위에 올라 손을 씻고 무릎을 꿇어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도다’ [차수약제 사랑무감] (此誓若除 死郎無憾)라고 기도했다”는 이순신의 만형 이희신의 차남 이분(李芬)의 「행록」은 노병천이 밝힌 대로,³⁶ 통제영의 문서정리로 숙부를 돕던 32세의 이분의 「행록」에 숙부 이순신의 신화적 영웅성을 부각시키려는 과장된 표현이 많은 점을 미루어 좀 더 세밀한 고증이 필요한 듯하지만, “여러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순신은 항상 기도하는 영(靈)적 사람이었다.”³⁷

³⁴ Ibid., 122

³⁵ Ibid., 225.

³⁶ Ibid., 182-185.

³³ Ibid., 151.

여기서 이순신의 기도는 성령님의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하겠다. ‘종교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미래의 불안과 현재의 역경과 과거의 죄책감으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다(왕상 18:25-29; 욥 1:5). 고대근동의 기도는 수메르어로 ‘슈 일라’(Šu-íla, ‘손-들어올린’)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어올리는 풍습으로 보존되었다(시 28:2; 141:2; 담전 2:8,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유대인들은 ‘잇두르’(siddur, 혹은 seder; ‘순서’)라는 기도집(Siddur Tefilah, ‘기도의 순서’)을 따라 하루 3회[사하리트(Shaharit)-일출부터 4시간 동안, 민하(Minḥa)-일출 6½ 시간 이후, 마아리브(Maariv)-일몰 1½ 시간 이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시 55:17; 단 6:10; Berakhot 26b에 따른 기원-아브라함의 아침기도(창 19:27)], 이삭의 황혼기도(창 24: 63), 야콥의 저녁기도(창 28: 10)], 모슬렘 역시 ‘살라트’(salat)라는 기도집을 따라 매일 5회(새벽, 정오, 오후 중간, 황혼, 밤) 정결 예식과 함께 메카의 카아바(Kāba)를 향해 이맘(imam, 기도 인도자)을 따라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 “알라 신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반복하며, ‘앗살라무 알라이쿰’(as-salamu alaikum, “그대들에게 평화를”)로 끝맺는다. 불교도의 새벽 예불이나 네팔인의 기도 팽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경이 지적하는 잘못된 기도로서 외식적 중언부언의 기도(시 109:7; 잠 28:9; 사 1:15; 마 6:5-7; 눅 18:9-12), 정욕 기도(약 4:3), 회개 없는 기도(사 1:15-17; 미 3:4; 막 11:25-26; 대조. 시 32:1-6; 대하 7:14)를 지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디아), 성령님 ‘안에서’(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프로스)” 드리는 기도(엡 2:18)가 아닌 것은 모두 방향이 틀린 잘못된 기도이다.

³⁷ Ibid., 242.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있는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히 5:7),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며(마 26:41),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마 26:39; 비교.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 기도하신 예수님;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행 20: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이다(계 2:10)] 기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가?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300승의 병거를 몰고 오는 세라에 대항할 58만 명의 ‘용감한 정예병’(깃보레 하일; 대하 14:7)을 가졌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유명한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대하 14:11) 하였더니,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대하 14:13)는 세계전쟁사의 단일 전투에 최대 사상자수를 기록하는 완승의 결과를 가져왔다.

여전히 이순신의 23회 해전의 전승 배후에 어떤 기도생활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3) 믿음의 사람 이순신

23번 해전에 완승하기까지 홀로 그 외롭고 무거운 전쟁을 짊어지고 “항상 하늘(天)을 바라보았던”³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³⁸ Ibid., 10.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268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부산을 향한 지 11일 만에 칠전량 전투(1597. 7. 16)에서 대패 전사하고, 배설이 끌고 온 단 12척의 배가 파직(2. 6), 하옥(3. 4), 백의중군(4.1-8.3)의 고난 속에 처한 이순신에게 주어진 참담한 선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군으로 일본군과 싸울 수 없다면 육지에 와서 싸우라”는 8월 7일자 왕의 유서(諭書)를 받고,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장계(狀啓) 속에 담긴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란 고백은 그의 담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압권이다.

9월의 거센 북풍의 추위에 여름옷으로 고생하는 약 2,000명 정도의 병사들에게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적선의 섬멸을 당부하는 다음과 같은 짧은 연설(9. 15)은 그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여 주는 금상첨화이다: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 필생즉사, 일부당경 죽구천부’ [必死則生 必生則死 一夫當選足懼千夫; 반드시 죽으려 하면 곧 사는 것이요, 반드시 살려 하면 곧 죽는 것]이며, 한 사내가 길목(비교, 울돌목 출구)을 지키면 천 사내를 떨게 하기에 죽하더라 했으니, 이것은 모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³⁹

이순신의 ‘상유십이’ 고백은 현실을 ‘알고도’ (비교, 롬 4:19) 인정하고 직면하고 돌파하는 ‘강하고 담대한’ (비교, 수 1:6-9) 믿음으로서,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그중에서 가나안 정탐과 정복에 시위된 갈렙의 믿음을 생각나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주전 2091년; 창 12:1-3) 이후 애굽 노예살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주전 1446년 3/4월; 출 12:41), 1년 4개월 후 가나안 최남단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

착한다(주전 1445년 6/7월; 민 13:20, 26). 가나안 정탐 40일 후(민 13:25), 간담을 녹이는 절망적 보고(민 13:21-23)를 들은 출애굽세대의 철야 통곡과 원망의 불신앙은 그 후 38년 6개월을 광야에서 매일 평균 85명꼴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들이 믿은 대로’ (막 11:23-24 참조)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민 14:38), 지파별 땅 분배(수 13-21장) 역시 갈렙으로 시작(수 14:6-15)하여 여호수아로 끝맺는(수 19:49-51) 복을 누렸다.

여기 회중의 불평과 절망의 아우성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는 모기소리 만한 갈렙의 신앙고백을 들어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 13:30).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민 13:33 참조) 그들은 우리의 ‘뱀’ (레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조, 민 14:7-9).

그 후 45년이 지나(수 14:7, 10), 85세가 된 노익장 갈렙의 점입가경의 신앙고백을 들어보라. “이제 보소서(베아트타 힌네)……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즉, 거인 족)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수 14:10-12).

어떤 암담한 현실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과 갈렙이 보여 주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도

³⁹ Ibid., 118.

전과 격려를 누려야 할 것이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전 11: 5-6)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7,487개)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고후 1:20; 비교. 빌 4:13) 기적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결의는 바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눅 17:33; 비교. 마 10:39, 16:25; 막 8:35; 요 12:24-25; 고전 15:36)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요 12:32-33; 롬 6:8; 뱀전 2:24) 그분의 실천이다. 이것이 기독교회사가 말하는 고난의 피와 순교의 원리, 즉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비교. ‘이 칼을 들고 참수대로, 이 밧줄을 들고 교수대로’(눅 14:26-27)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이다.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 요삼 2절)의 후유증으로 ‘십자가 없는 면류관’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향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 4:12)는 바울 사도의 순교신학은 큰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제 ‘일부당경 죽구천부’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보자. 이 경구(警句)는 저자가 밝히는 대로(249쪽) 「오자병법」 논장(論將) 편의 ‘십부소수 천부불과’(十夫所守千夫不過, “열 사내가 자리를 지키면 천 사내가 지나지 못할 것이요”)와 려사(勵士) 편의 ‘시이일인투명 죽구천부’(是以一人投命 足懼千夫, “한 사람이 생명을 던진다면 천 사내를 두렵게 하기에 족하다”)의 독자적인 병합으로, 이순신의 문무를 겸한 병법이론과 실제의 경지는 물론 울돌목 출구를 이용한 ‘일당천’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병법을 보여 준다.

한국현대사에 그린 베레 100명과 주먹치기를 해도 이긴다는 각오로 만든 중앙정보부첩보대의 구호 ‘일당백’도 대단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일당천 이당만’이라는 기적의 공식을 소개한

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신 32:30; 비교. 레 26:28; 사 30:7).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수 23:10).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실증을 보자. 성령님이 삼손을 ‘관통’(좃라호)하셔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천 명을 죽일 수 있었다(삿 15:14-16). 기드온 300명 용사가 ‘무수한 메뚜기, 낙타, 해안 모래 같은’(삿 7:12)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기습 자중지란으로 ‘12만 명’, 추격으로 ‘만 5천 명’(삿 8:10) 모두를 격퇴한 것은(일당 450명),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겁악한 미디안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삿 6:16)는 약속과 여러 표징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기드온 ‘을 옷 입히시는’(라베사 에트; 삿 6:34)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 잡은 병사 하나만 데리고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의 모래 같은 병사’(삼상 13:5)를 가진 블레셋 군대를 향한 정면 돌파를 감행하여 그 진중에 ‘하나님의 떨림’(헤르다트 엘로힘; 삼상 14:15)이 있음도 “여호와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삼상 14:6)는 담대한 하나님 신뢰에 근거한다.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 4명의 흔들거리는 걸음을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왕하 7: 6-7)로 증폭시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신 것이다(신 28:7).

본래 ‘믿음’(faith; 라틴어 fides에서 유래)이란 자신을 믿는 ‘신념’(confidence)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trust)와 충성(loyalty)’으로 웹스터(Webster) 사전은 정의한다. 신념은 절대적인 확신과 보장이 없기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시 62:3) 같은 것이라면, 올바른 믿

음은 ‘약속을 맹세로써 보증하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의 하나님’(히 6:13-20)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비록 없을지라도’(합 3:16-19),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단 3:16-18), ‘나를 죽이실지라도’(욥 13:15),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히 13:8), ‘늘 신실하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딤후 2:13)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고전 10:31), ‘깨든지 자든지’(살전 5:10), ‘살든지 죽든지’(롬 14:8; 고후 5:9; 빌 1:21), ‘뱀사에’(골 1:10), ‘주 예수님을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지 증명하는’(엡 5:10) 고난과 순교의 삶을 열망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히 11:38) ‘믿음의 은사’(고전 12:9)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인 것이다.

본래 구약성경에 ‘믿음’(에무나)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을 ‘믿다’(아멘)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믿음)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義)란 자신이 무화과 잎으로 엮은 ‘앞가리개’(하고르; 창 3:7) 같은 능동적인 의가 결코 아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는 다 여성의 ‘생리대’(베게드 잇딤, ‘주기들의 옷’; 사 64:5) 같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양의 ‘가죽으로 손수 지어 입혀 주시는’(창 3:21; 비교. 죽임 당한 어린 양, 계 13:8) 수동적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대 최상의 명령인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복음이며,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요 16:9)가 가장 악질의 죄임을 천명하는 이유이다.

‘믿음’(에무나)은 또한 그것을 소유한 자를 믿을 만하다는, ‘신실, 충성’이란 뜻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신 32:4; 사 25:1; 시 33:4 등)과 ‘충성된 사람’(잠 28:20), 오실 메시아의 ‘신실’(사 11:5)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믿다’(피스트오)에서 파생한 ‘믿음’

(피스티스) 역시 ‘신실, 충성’의 뜻을 가져(비교. 피스토스, ‘충성스런, 신실한’), 모세와 예수님의 ‘충성’(히 3:5-6), 그리스도인의 신실과 충성(고전 4:2; 계 2:10)에 사용된다.

4) 충성의 사람

‘믿음’이란 히브리어(에무나)와 헬라어(피스티스)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 객체로서의 ‘하나님을 믿음’은 곧 주체로서의 ‘믿음직한 자아’를 만듦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큰’ 믿음(마 15:28), ‘담대한’ 믿음(히 10:35; 요일 5:14), ‘견고한’ 믿음(롬 4:20; 참조. 행 14:22, 16:5; 고전 8:9; 롬 15:1), ‘온전한’ 믿음(히 10:22; 참조. 딤후 1:13, 2:2),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히 11:38)의 소유자는 한결같이 ‘죽도록 충성하는’(계 2:10, 13; 참조. 빌 2:8, 30; 롬 16:4; 히 11:35-37) 충성의 사람이었다.

충성의 사람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누구에게나 시종여일 ‘충성된 자로 들킴’(고전 4:2 원문, 피스토스 티스 휴레제이)을 요구한다. 그는 남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치 않을 정도로 자책 받지 않으려는 양심의 사람이며(고전 4:3),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않는’(고전 4:5) 주전(主前)의식, 종말론적 의식의 소유자이다. 믿음의 사람 이순신의 인격에 면면히 흐르는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그가 비록 성령님의 일반은총 아래 산 자였지만 이러한 특성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충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충무공전서』 9권에 ‘장부출세 용즉효사이충 불용즉경야족의(丈夫出世 用則效死以忠 不用則耕野足矣, “대장부로 태어나서 (나라에) 사용이 되면 죽도록 충성할 것이요, 사용이 되지 못하면 밭을 갈아도 족하니라”는 그의 인생관이 드러난다.

그는 투옥(1회), 파직(3회), 백의종군(2회), 무수한 죽을 고비와 노랑해전의 전사에 이르도록 끝까지 군에 남아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행

20: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 (계 2:10)이며,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살전 2:5) ‘사명은 진실한 것’ 임을 묵묵히 실행하는 충성의 사람이었다. 정유재란 시 조정의 부산포 출동 명령을 받고 ‘항명’이라는 위험한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장을 중시하여 초탐선과 망군으로 6일을 지체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도 임금과 백성과 나라를 사랑함에 있었던 것이다.⁴⁰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로 투옥되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서울 금부의 감옥에 있을 때, 뇌물로 석방을 권하는 조카 이분(李汾)에게 ‘사생유명 사당사의(死生有命 死堂死矣, “생사는 천명에 있으니 죽어야 하면 죽을 뿐이다”)라고 꾸짖었다. 그가 백의종군 신세일 때 삼도 수군의 전멸 소식과 함께 도원수 권율이 찾아와 대책과 비방을 요청할 때, “직책이나 계급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발을 벗고 나서는 투철한 사명감”의 사람이었다.⁴¹

명량해전에서 단 13척으로 왜군 전선 130여 척을 물리친 세계해전 최대 기적에 대한 조정의 평가가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는 데 불과했다”⁴² 정도이며, 고작 은전 20냥과 병사 1만 명에게 함께 나눠 준 ‘면사(免死)’ 첩 정도였을지라도 그는 “결코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고 (“대중의 박수도 의식하지 않고”⁴³), 그저 말은 바에 목숨을 바쳐 묵묵히 충성할 따름이었다.”⁴⁴ 그는 “스스로가 영웅이기를 거부했다……결정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것은 결정적인 것을 위해 모두 포기했

다. 그의 마음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었다. 이순신은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면 (“선조와 당쟁, 일본군의 중심축에 끼어”⁴⁵) 어떤 고초도 감내할 수 있었다.”⁴⁶

오늘의 우리 조국의 국내외적 현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충성의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왕국 확장과 조국 대한민국과 동족을 동시에 사랑하는(롬 9:1-2 참조) 믿음과 실천의 사람을 필요로 하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다.

‘사명은 진실하며’ (고후 6:3; 살전 2:5),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 (행 20: 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 (계 2:10),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생관이요 사명의식이다.

나가면서

히브리 성경의 전쟁신학이라는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에 대한 본 논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가 제기한 『우리 역사 5천 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주적 시각으로 본 우리 민족사』(서울: 바다출판사, 2000)에서 더 나아가, 보다 신본주의 입장에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본론 초두에서도 살폈지만(참조. 1.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신학), 신본주의란 하나의 ‘대하(大河) 이야기’ (meta-narrative)인 성경의 구조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를 중심한 창조사관으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1189장으로 구성되어 ‘태초에’로 시작

⁴⁰ Ibid., 33-40

⁴¹ Ibid., 68.

⁴² Ibid., 154.

⁴³ Ibid., 254.

⁴⁴ Ibid., 155.

⁴⁵ Ibid., 155.

⁴⁶ Ibid., 258.

하여 ‘아멘’으로 끝나는 신구약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란, 비록 인간은 ‘계속해서 더럽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계 22:11) 절망적인 존재임을 폭로하는 동시에, 태초부터 종말을 아시고 주장하시는(사 46:10; 계 22:13) 주권자 하나님의 소망 넘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창세기 1, 2, 3장이 계시록 22, 21, 20장과 내용적으로 각각 교차대구(chiasm)를 이룸도 우연이 아니다. 올바른 역사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 창조(창 1-2장)—인간타락과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하나님의 완성(계 21-22장)이란 구속사적, 언약적, 종말론적인 창조사관을 전제하는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창조-재창조; 창 1-2장), 주로 말미암고(섭리-성화; 창 3장-계 20장), 주에게로 돌아감이라(심판-영화; 계 21-22장).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이라는 성부-성자-성령(3위1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교리의 빛 아래서 우리 역사 5천 년을 해석해야 함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다.

21세기에 이르러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세계의 약 260여 국가, 24,000 종족, 71.5억 인구, 6,912언어의 배후에는 ‘한 구음과 언어’로부터(창 11:1) 70개 국가로 ‘홀으신’(창 11:8, 10장의 70 열국 도표) 하나님의 ‘구원적 심판’이 존재한다. 즉 바벨론 ‘지구라트’(ziggurat)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 정상신전과 기저신전을 층계로 연결하는 인공적 산을 가리킨다.⁴⁷ 주전 460년경 바벨론을 방문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바벨론 지구라트를 나선형 층계를 가진 91.44m의 정방형 8층탑으로 보고한다; 창 28장 12절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술람)의 실체는 지구라트 ‘층계’(아카드어, 심밀투, simmiltu)로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는 인간의 교만과 자멸 반역에 대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인간의 문화적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그렇다! 75세의 절망적인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창 13:16, 28:14), ‘하늘의 별같이’(창 15:5, 22:17, 26:4), ‘바다의 모래같이’(창 22:17, 32:12)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권적 하나님은 215년의 긴장과 기대의 세월 속에 단지 70명(창 46:27; 대조. 430년 애굽 종살이 동안 약 200만 명의 폭발적 증가)만 허락하신다. 이 ‘70’이란 숫자의 신학적 의미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신 32:8)라는 모세의 노래에서 분명해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출 19:5-6)로서 온 열국을 대표하며, 세계복음화의 기수로 부름 받은 것이다.

신약 오순절에 15개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의 방언으로 제각기 주 예수님의 복음을 알 아듣게 하시고, 핍박의 강풍을 타고 성령님의 불덩어리들이 다시 ‘흠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행 8:1, 4, 11:19) 바벨론 지구라트의 종말론적 구원사건이다. 이제 영적 유대인이요(롬 2:29),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보물 된 백성’(벧전 2:9)인 그리스도인들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는 사명을 이양받은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설교에서 확증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 하게 하려 하심이로되……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26-

⁴⁷ 지구라트는 십자가 구원을 향한 단식의 기다림이란 시각에서 고찰한 김진섭, “십자가와 지구랏: 성경과 고대근동학의 문화종교 정책적 만남”, 『구약논단』 16(2004), 161-214를 보라.

30; 참조.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설교인 14:15, 17).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의 개성, 그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혈통과 연대와 거주를 정하신 주권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체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폴 틸리히의 유명한 명제인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면, 주 예수님의 복음이 한국에 전래되기 이전의 한국문화와 전통종교들(무속신앙, 도교, 불교와 유교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문화·종교 변혁과 개혁의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파괴 오염되었지만, 성령님의 일반은총 아래 악을 억제하며 선을 장려하며, 예술·문화·종교적 활동을 허용하심도 깨달아야 한다. 마침내 성령님의 특별은혜로 치유 정화된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문화와 신앙은 그 본연의 문화·선교적 명령(창 1:27-28)을 수행하여 ‘성경한국, 기도한국, 선교한국’이란 자랑스러운 세계사적 평가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성웅 이순신(1545-1598)은 분명히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첫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1832. 7. 25.)⁴⁸ 및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기(1885. 4. 5) 수 세기 전에 살았던 불신자이다. 성경은 주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의 특징에 대한 수많은 진단 목록(예: 마 15:19(7개), 롬 1:28-32(21개); 고전 6:9-10(10개); 갈 5:19-21(15개); 골 3:5-9(12개); 살전 4:4-8(2개); 딤후 3:1-5(20개))과 그 풍성한 사례를 제공한다.

그러나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참담한 현실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원한

이순신의 삶은 이러한 타락과 부패와 무능의 죄악상으로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비록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반은총’(special common grace) 속에서 조국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그의 생애 배후에 드러난 비전, 기도, 믿음, 충성, 겸손 등은 주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닮고 전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물며’ [유대인 랍비들이 즐긴 칼 바호메르(qal wahomer, 여자적으로 ‘가벼움과 역칭’이란 뜻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예증으로 ‘하물며’라는 역칭에 빠진 자처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논증법; 욥 4:11; 마 6:30, 7:11; 눅 18:7; 히 9:14]의 논증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비전, 기도, 믿음, 충성, 겸손의 소유자로 통일한국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던지는 성령님의 ‘일반은총의 특별은총화’의 탁월한 실례가 될 것이다.

세계 71.5억의 인류 가운데 우리 7천2백만 한민족만이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민족이라는 고난과 반목의 반세기를 지나고 있고, 북한의 짓밟힌 인권과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로서 3대를 세습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대립을 안고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복음과 애국의 양면을 전수해야 할 한국교회가 성웅 이순신에 대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데 이 줄고가 조금이라도 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날 전 세계교회가 “성경기독교, 기도기독교, 선교기독교”로 칭송하는 120년 역사의 한국교회가 평양 장태현교회의 회개와 부흥(1907. 1. 15)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 가운데 세계 최대 디아스포라로서 약 180개국의 7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선교사 파송 세계 제2위인 174개국에 파송된 2만 7천 명의 한인선교사들의 현장과, 세계에서 가장 ‘무공해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되는 북한의 추정된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매년 20만 명의 세례자를 목표로 하는 2020비전과 사명의

⁴⁸ 한국 기독교 전래사의 기원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귀츨라프(Karl Gutzlaff, 1803-1851)를 그 원년으로 삼아 53년 앞당겨야 한다는 제언에 대하여, 참조. 오희기, “조선 최초 선교사 칼 귀츨라프”, Now and Here (VIP Magazine of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vol. 8 (2013 여름), 10-21.

국내 군선교 현장을 비롯한 약 6만 개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려는’ 회개와 부흥의 몸부림을 계속하면서, 인류역사의 3중 원수관계가 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여호와와의 전쟁의 시각에서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성웅 이순신이 보여준 위대한 공헌을 통하여, 하물며 더욱 진정한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닮고 전하려는 우리 모두의 삶에 더욱 선행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A Martyr, Pastor Park, Yeon Se: the Step of a National Movement

■ 김수진 목사 Kim, S●● Jin

- 개신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교회사연구원 원장,
 - CCK 기독교문화제발굴 보전본부장
 - 한국기독교성지순례선교회 전문위원장
 - 광나루문인회/한국목양문인회 회장 역임
- 『코리아의 선각자 서재필』 등 90여 권의 저서 집필
 - 찬송가 작사/새찬송가 577장



1. 머리말

박연세(朴淵世) 목사는 목포 양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제강점기 말엽 대동아전쟁에 정면으로 반대하다가 천황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감방에서 동사(凍死)한 순교자이다. 물론 이 무렵 한국교회와 민족을 지키다가 순국 순교한 분들이 많지만 박연세 목사의 대구형무소 옥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이도 많지 않고, 아는 이들도 차마마땅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 전남지방의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1997년) 박연세 목사 순교자기념탑과 함께 양동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탑을 건립한 일이

있었으나, 심지어 그가 시무했던 전북 익산시의 고현교회에서조차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별로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 논고는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그의 신앙과 삶이 우리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시사점을 살피는데 주안점을 둔다.

2. 목포 양동교회 설립 배경과 로티 선교사 첫 순교

1) 이수정의 도일과 개종

호남지방에 기독교가 전파되기는 189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남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에 의해서 1893년 11월 첫 출발을 내딛게 된다. 이들이 호남지방에 입국하게 된 배경은 1882년 6월 임오군란(壬午軍亂)이다. 임오군란은 명성황후의 미신적 신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는 산신령에게 제물을 많이 공양하면 백성이 잘살 것이라 믿고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 이 일로 군인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돌이 혼합된 곡식을 지급하였고, 군인들은 곡식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밥을 지으려고 하니 쌀 속에 너무나 많은 돌, 자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해야 한다면서 궁궐을 습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전라도 옥과 출신 이수정(李樹廷)은 곧 궁궐에 뛰어 들어가 명성황후를 구출해 준 일이 있었다.

조선국 이수정이 작년 1882년(明治 15년) 내란이 일어날 때 왕비(王妃)를 옹호하여 천고만란(千古萬亂)을 겪은 후 촌에 숨겨 두었는데 난이 평정된 후 논공행상을 할 때 친구 민영익(閔泳翊)과 논의하고 당원 수 명과 함께 혹은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이 있는 곳으로 가고 혹은 일본에 왔는데 이수정은 그중

수령(首領)으로 전년까지 선략장군(宣略將軍)이었으나 지금은 그 관직을 사임하고 일본의 농학과 법률을 연구하며 또한 조운(漕運)과 우편 운영을 실시 시찰키 위하여 동지 5, 6명을 데리고 왔다.¹

이수정은 1882년 10월 메이지마루(明治丸)인 일본 화물선에 승선하여 자신의 절친한 친구 안종수(安宗洙)의 소개로 일본의 평신도 지도자이며 농학자인 츠다 센(津田 仙)을 도쿄(東京)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상면하게 되었다. 원래 이수정은 양반 가문에서 출생하였기에 한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때 이수정은 츠다를 만났다. 그는 과거 한국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춘 지도자였다.

지금으로부터 千餘年前에 귀국에서 論語를 보내주어 우리를 가르친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알 수 없으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객(異客) 매우 기뻐하며 희색이 滿面했는데 그때 찌다 씨는 또 말하기를 그런데 孔子의 빛은 등불(燈火)과 같아서 우리나라 전체 어두운 길에 다 비칠 수 없으나(불가능하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동쪽 하늘(東天)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밝은 해(旭日衝天 혹은 旭日昇天)가 있으며, 공자의 등불은 아무 필요가 없다한즉 이국(異國)의 나그네(異客)는 매우 이상하고 괴이(怪異)하게 생각되어 그 연고(事由)를 물은즉 찌다가 여기 대답하기를 곁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을 쓴 족자를 보면서 옛날 論語를 보낸 은혜의 보답을 등불보다 더 밝은 햇빛(日光)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족물(簇物)을 드릴 뜻을 표시하며, 異國의 손님이 이 글을 읽어 보고 감계 무량하여 한없이 기뻐하였다.²

¹ 오윤태, 『선구자 이수정편』 (서울: 혜선출판사, 1983), 31.

² Ibid., 46-47.

츠다는 이수정에게 공자의 등불보다 더 밝은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면 서 그 예수를 소개하는 신약성경을 선물로 주었다. 이수정은 성경을 숙소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였다. 원래 이수정은 전주 이씨로 대대로 왕족의 가문이라 하여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때 이수정은 양반들만 가지고 있는 예수의 족보가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이수정은 츠다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겠다고는 말을 전하였고, 그는 소다(長田時行) 목사를 소개받아 개인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는 츠다의 안내로 1882년 12월 25일 도쿄 제일교회를 방문하고는 세례를 받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이수정은 소다 목사의 도움으로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노월정교회(露月町教會, 현재는 시바교회=芝教會)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수정은 야스가와(安川亨) 목사에게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질문하여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 후 신자 되기를 결심하고, 1883년 4월 29일 주일 노월정교회에서 존 녹스(John Knox) 목사의 입회하에 야스가와 목사가 세례문답을 했는데 너무도 대답이 명확하고 틀림이 없어서 시뻘한 목사나 입회한 목사가 다 놀랐고, 세례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세례 받을 만한 자격자로서 장엄한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처음 베푸는 한국 사람의 세례식인 동시에 한국개신교에 선구자가 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역할을 할 사람의 세례식전인 만큼 선교사들과 일본 기독교 신자 및 지도자들의 정신을 긴장케 했던 것이다.³

2) 이수정의 선교사 유치운동

이수정은 세례를 받은 후부터 고국에 하루속히 기독교가 전해지기를 바랐다. 이미 일본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본이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 병원이 있으며, 미션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가 양성된 사실을 친히 보게 되었다. 이미 그는 미국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 Loomis) 선교사의 도움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 유치운동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이수정의 업적 가운데 둘째로 큰 공적은 선교사의 초래(招來)운동이었다. 그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미국 선교부에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883년 12월 13일부터 이수정은 *The Missionary Review*를 통해 미국교회에 1차로 했으며, 1884년 녹스의 이름으로 “조선의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호소한 편지가 외국 선교지(宣教誌)에 실려 결국 많은 미국 신학생들이 읽게 되었다.⁴

이수정이 보낸 서신이 미국 선교잡지에 소개되자 미국 뉴욕의 맥 윌리엄슨이라는 젊은 실업가가 이 소식을 접하고 5천 달러를 선교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중 절반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약속을 하였다.

3) 선교사 내한

이때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는 활기를 띠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료선교사 알렌(Dr. H. N. Allen, M.D.)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1884년 9월 20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의료선교사 알렌은 기독교

³ The Korean Mission Field (July, 1937), 140.

⁴ The Missionary Review Vol. VII(1884), 145-146. Rijutei's Appell Missionary Yokohama Dec. 13, 1883.

선교사로서 한국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 후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는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를 파송케 되었으며,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부에서는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1884년 12월에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일본 주재 선교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요코하마에 상륙하였다. 때마침 일본 주재 미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와 일본 주재 루미스 미 북장로교 선교사의 영접을 받고 일본에 상륙하였다. 이때 이수정은 한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모아 놓고 한글을 가르쳤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배편이 마련되어 1884년 3월 31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들은 항해하는 갑판에 올라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미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던 일본 요코하마, 나가사키는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지만 부산은 첫인상부터 무슨 벌집 같은 자그마한 집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거리는 전혀 정돈이 안 되어 있었다. 여기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오후 3시까지 모이라는 선장의 말에 따라 부산항에 모여서 다시 목적지인 인천 제물포항을 향해 출발하게 됐다.⁵

선장의 말대로 부산항에 도착하여 다시 4월 3일 승선을 하였다. 일행을 태운 배는 인천 제물포를 향하여 열심히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따라 비가 서서히 오더니 여기에 북풍이 불어와 항해하는 데 여간 어렵지 않았다. 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도착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 그만 그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⁵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서울: 쿰란출판사, 2002), 86.

이들은 그해 4월 5일 부활절이었기에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일찍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려고 하였지만 비바람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기는 힘이 들 것 같았다.⁶

결국 이들은 부활절 오후 3시경에 주한 선교사 알렌의 안내를 받으면서 인천 제물포항에 하선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사건으로 보수파 민영익 등이 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에는 제한을 받을 것 같고, 또 언제 우정국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아펜젤러 부인이 때마침 임신 중이어서 아펜젤러 부부는 서울 입성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다이부츠(大佛) 호텔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미국 선교부에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다.

조선의 국내 사정이 좋지 않으니 1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어학 훈련을 받고 국내 사정이 호전되면 그때 돌아와서 교육 사업에 헌신하겠습니다.⁷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2주간 인천에 머물다가 다시 일본 나가사키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일본 막부 정권의 실력자였던 도쿠가와(德川家康)가 철저하게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막부정권은 고닌구미(五人組)를 조직하고 천주교 신자를 색출하여 배교하지 않는 자는 전부 나가사키 사형장으로 이송하여 그곳에서 처형시켰다. 나가사키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던 아펜젤러 부부는 순교를 각오하고 1885년 6월에 입국을 하고 8월에 정

⁶ Ibid., 88.

⁷ Appenzeller, Letter (April. 8. 1885), Inchun, Korea.

동에 배재학당을 설립하였다.

이미 입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렌이 운영하는 광혜원에서 조선인을 모아 놓고 의학 강의를 하면서 알렌을 돕고 있다가 자신도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선교사의 길을 독자적으로 걷겠다고 결심을 하고 1886년 2월 경신학당(또는 예수학당)을 설립하고 고아원 겸 학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시 정동 자신의 집에서 1887년 9월에 정동장로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그의 선교사역이 시작된 지 어언 6년이 지나게 되었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안식년을 맞이하던 1891년 9월 일시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4) 미 남장로교 선교사 유치운동

(1) 언더우드 선교사 안식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귀국을 하였지만 안식을 하는 것도 잊은 채 시카고 메코믹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고 한국 선교 현황 보고 강연을 부탁받았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도를 하였다. 신학교에서 보고강연을 잘하면 한국에 지원할 선교사가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을 하였다. 이때 미국 남장로교 소속 신학생 테이트(L. B. Tate)에게 깊은 관심을 심어 주었다. 다시 언더우드는 1891년 10월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모이는 미국신학생해외전도연합회가 주관하는 곳에 강사로 가게 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선교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있었으며, 이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중 윤치호라는 사람이 밴더빌트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다. 윤치호 역시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강연을 하였다. 이들의 강연을 들었던 이 모임에서 메코믹 신학생 테이트와 리치몬드 유니언 신학교 신학생인 존슨(C. Johnson)과 레이놀즈(W. D. Reynolds)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한국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신청을 하였다.⁸

이들은 큰 기대를 갖고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를 찾아갔지만 해외 선교부의 책임자는 한국은 알지도 못하며 현재 그리스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거절하였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소식을 듣고 미국 남장로교회 구역을 순회하면서 보고강연회를 가졌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개교회마다 호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헌금까지 내놓은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헌금 500달러를 내놓게 되었으며, 이에 감동이 되었던 언더우드의 형인 존 언더우드 장로가 2,000달러, 그 외 동료들의 협조로 모두 3,000달러가 준비되었다. 이처럼 선교기금이 마련되자 이를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 현금 함으로 이에 힘을 얻었던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7명의 지원자를 받아 1892년 7월 7일 선발대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송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최초의 세 명의 선교사가 정해진 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네 명의 여성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면 테이트, 메티 테이트(M. Tate) 남매, 데이비스(Miss L. Davis) 여선교사, 전킨(W. M. Junkin), 레이번(M. Leyburn) 선교사 부부, 레이놀즈(W. D. Reynolds), 볼링(P. Bolling) 선교사 부부였다.⁹

이들의 환송예배는 한국선교의 성공을 비는 예배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선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이들 7인의 선발대 선교사들은 1892년 11월 서울에 도착하여 서대문밖 프랑스 대사관 옆에 자리를 잡고 어학 훈련을 받았다.

⁸ J. T. Brown, Mission To Korea (PCUS: Atlanta USA, 1962), 19

⁹ Ibid., 22

(2) 호남선교 7인 선발대

이들은 선교구역인 호남지방을 배정받고 1893년 6월 전라도 전주에 전주교회를 설립하였다. 다시 1894년에는 드루(Dr. A. D. Drew, 유대모) 선교사와 벨(E. Bell) 선교사, 오웬(Dr. C. C. Owen) 선교사, 해리슨(W. B. Harrison, 하위럼) 선교사들이 차례로 호남선교로 내한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에는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가 군산선교부를 설치하고 군산교회를 설립하였다.

1897년 2월에는 벨 선교사와 해리슨 선교사가 전남 내륙지방인 나주에 선교부를 설치하려고 선교부지와 기거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였지만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목포가 개항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가 목포에 내려가 초분(草墳)이 있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목포선교부를 개설하고 양동교회를 설립하였다.

5) 목포 양동교회 출발

(1) 목포 양동교회 설립과 배유지 선교사

벨 선교사 부부와 오웬 의료 선교사 부부가 초분을 정돈하고 그 자리에 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전남지방의 최초의 교회였다. 벨 선교사를 가리켜 배유지 선교사라 부르고, 오웬 선교사를 오웬 선교사라 불렀다. 배유지 선교사는 주로 내륙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오웬 선교사는 의사이면서 목사였기에 목포진료소를 개설하면서 주로 목포 앞바다에 널려 있는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육지로는 해남, 강진, 장흥, 고흥지방까지 다니면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선교사가 목포에 들어와 선교운동을 개시하기는 꽤 오랜 시기에 속한다.

현 무안군 이로면에는 천주교가 창립되어 메이지 31년 전 봄에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가을에는 개항이 되었는데 약 반년 앞섰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 배유지(Eugene Bell)는 조선인 변창연을 파견하여 서울에서 목포에 오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선교에 종사하게 되었다. 배유지 선교사는 목포에 온 이래에 그 머나먼 목포에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오직 구령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다음 해인 메이지 31년 가을에 만복동(현 양동 86번지)을 중심해서 새로운 전도소, 현재 유서백 선교사의 저택 겸 선교사 주택을 건축하였다.¹⁰

목포는 개항이 되면서 일본과 중국 상해를 왕래하는 무역선이 다녔으며, 이 일로 목포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목포로 옮겨 오고 있었다. 그래서 배유지 선교사는 자신의 조사인 변창연에게 교회를 맡기고 내륙지방을 자주 왕래하면서 나주지방과 영광지방, 장성지방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여기에 목포선교부는 1902년에는 정명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03년에는 영흥학교를 각기 설립하였다. 남편인 배유지 선교사는 날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차룻테가 얼마나 귀엽게 말하는지 말씀드렸던가요. 그 아이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어제는 그 아이가 깡충깡충 뛰어와서 얼굴을 비비면서 ‘맘무, 왁! 업어 줘’라고 말하는 거예요.¹¹

¹⁰ 목포부사편찬위원회, 『목포부사』, (전남:목포부사편찬위원회, 1930), 439.

¹¹ Lottie, Letter To Mother (Nov. 14, 1900).

배유지 선교사 부인 로티 여사는 두 딸을 낳아서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키우고 있었다.

(2) 배유지 선교사 부인 첫 순교

배유지 선교사는 1901년 4월 12일 전주에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협의 회로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전주를 향해 갔다. 목포지방 사경회라도 하는 날이면 부인 로티 선교사가 강사로 나가 한국어로 한국인 여성을 교육시키는 일을 감탄할 정도로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리고 있었다. 배유지 선교사는 회의 도중 부인 로티가 그 딸을 버두고 급성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가장 빠른 시일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산항에서 목포를 향해 가는 배를 찾았다. 마침 군산에서 일본상선이 목포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배로 목포에 도착하였지만 부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으며, 두 딸은 엄마 품에 안겨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다.

배유지 선교사 부인 로티 여선교사의 죽음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촉매제가 되었다. 로티 여선교사는 한결같이 성경대로 살다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서는 한국 첫 순교자인 로티 선교사의 장례식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 주관으로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서울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양화진에는 1900년 광혜원 원장인 헤론 의료 선교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편 목포에서는 신도들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로티 선교사의 위대한 순교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로티 기념교회

당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때 양동제일교회 교인들은 부지런히 헌금하여 돌집으로 교회 신축을 하고 목포의 선교기지를 더욱 든든하게 확보하고 나갔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념교회당을 완공했던 양동제일교회는 1903년 완공을 하고 200여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발전을 하였으며, 로티 선교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로티 위더스폰 벨 기념교회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3. 목포 양동교회 박연세 목사와 두 번째 순교

1) 중일전쟁과 신사참배 결의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을 이룬 이후 총독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1931년 중국 동북부지방 삼성(혹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을 침략하고 만주국을 설립하였다. 이 만주국의 통치는 일본 관동군이 맡았으며, 만주국의 수도를 장춘(長春)으로 정하고 신경(新京)이라 불렀다. 말이 만주국이지, 모든 통치는 일본 관동군 사령부가 맡았다. 그 넓은 대지를 단숨에 삼킨 일본은 중국 본토를 그대로 둘 리가 없었다. 그들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상해를 점령하고 당시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남경을 침략하여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하면서 그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일본 군인들은 남경(南京)의 선량한 양민을 240만 명이나 학살한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이처럼 1931년 만주침략과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으로, 아시아는 유색인이 차지해야 한다면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부르짖으면서 아시아에서 모든 백인을 추방시키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중일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일제는 한국교회에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미명하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갔다. 당시 독일 히틀러

와 이탈리아의 무솔소리니, 일본 이렇게 3국 동맹을 맺었기에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 교황청에 압력을 가하여 조선 천주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1936년 5월 당시 뭇소리니 지배하의 이탈리아 내에 있던 로마 교황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신사에 참배해도 좋다는 훈령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당하였다.¹²

로마 교황청의 신사참배가 한국 천주교에 하달되자 한국 천주교에서는 일본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알고 전국 신자들에게 알리고 역시 한국 천주교 지도부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신사참배를 행하였다. 다시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양주삼 총리사의 주재하에 간부들을 소집하고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연전(年前) 총독부 학무국에서 신사참배에 대하여 조회한 바를 인쇄 배부한 일이 있거니와,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잘 인식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고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신사참배가 교리에 위반이나 구애됨이 추호도 없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¹³

이러한 내용을 모든 교파들에게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였으며,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양주삼 총리사의 명령으로 개교회에까지 전달하였다. 이 일로 한국 천주교와 한국 감리교회가 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한국 장로

교회라고 해서 그냥 놔둘 일본이 아니었다. 그동안 한국 장로교회를 신사참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기독교대회 의장 도미다(富田満) 목사가 수시로 한국을 왕래하면서 한국 장로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였다. 한반도에서 가장 교세가 큰 한국 장로교회의 27개 노회 중 19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상황이었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일제는 1937년 9월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제27회 총회가 개최될 때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날치기 식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원래 회의법상 반대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반대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찬성표만 묻자 그대로 가결되었다. 이때 총대원들 사이에는 고등계 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한부선 선교사는 총회장의 사회가 불법이라고 항의를 하였지만 고등계 형사들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신사참배 결의안이 통과되자 서기 곽진근 목사는 미리 작성해 온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我等은 神社가 宗教가 아니요, 基督教의 敎理에 위반되지 않는 本意를 理解하고 神社參拜가 愛國의 國家儀式임을 自覺하며 神社參拜를 率先 勵行하고 追리 國民精神 總動員에 參加하여 非常時局下에 統後皇國國民으로서의 赤誠을 다하기로 期함.¹⁴

이처럼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총회는 부회장 김길창 목사와 임원, 각 노회장들이 평양신사에 참배를 하고 속회를 계속하였다. 이 일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해 왔던 한국 장로교회까지 굴복하게 됨으로 자연히 개교회에서도 주일 낮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국민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¹² 「大阪毎日新聞」(1936. 8. 2).

¹³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78), 187.

¹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7회 회의록」(경성: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1938), 9.

시작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1939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내에 국민총동원정신연맹(國民總動員精神聯盟)을 조직하고 이사장에 총회 종교교육부 총무 정인과 목사가 맡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독려를 하였다.

2) 천황신제와 일본신사

일본에서 언제부터 천황이란 말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일본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에서는 왕을 황제(皇帝)라 불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황제보다 더 높은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하던 중 천황(天皇)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천황이란 말의 유래는 중국 도교(道敎)에서 온 말로 우주 지배자를 천황대제(天皇大帝)라고 부른 데서 연유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7세기 초 중국 수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수나라의 황제(皇帝)와 대등한 말로 도교의 천황대제란 단어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따서 천황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오가미(大王), 즉 대왕(大王)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후 일본은 황국사관(皇國史觀)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면서 천황의 역사를 거짓으로 기술하게 되었다.¹⁵

이러한 사관은 잘못된 사관이다. 일본의 실제적인 천황은 3세기 말 15대 응신천황(應神天皇)부터이다. 이때 즉위했던 응신천황은 규슈 지방이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즉위하고 천황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사학자들은 확실히 없다고 말한다. 천황이 실제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기는 9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정치는 귀족과 무사(武士, 사무라이)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이들은 천황으로부터 대권을 부

여받았다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일본 국내에서는 성(城)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일로 자연히 천황은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천황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의 왕인(王仁) 박사가 전해 준 유교 문화와 한자의 문자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었지만 유교의 조상숭배 사상은 없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도 힘이 들었다.

이 무렵 에도(江戸=현 東京)에서 도쿠가와(德川家康) 장군이 이끈 막부정권(幕府政權)은 일본을 장악하고 교토(京都)에 있는 천황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1867년부터 정권이 몰락하면서 교토에 있는 메이지(明治) 천황이 정권을 장악하고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東京)로 천도(遷都)하였다. 1889년 일본제국 헌법이 발표되면서 일본 천황의 권력은 막강하여졌다.

제1조 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므로 침략할 수 없다.¹⁶

이처럼 일본제국 헌법은 신성불가침 조항으로 천황 자체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권위의 절대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천황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황의 명령 한 마디가 곧 법이었고, 그의 자리를 헌법에 못 박아 놓았기에 천황을 가리켜 현인신(現人神), 즉 천황은 살아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일본제국 헌법은 천황을 신으로 받들고 천황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천황의 이름으로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전쟁보상금으로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하고 곧바로 대북신사(台北神社)를 신축하고 대만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 신인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祖大神)

¹⁵ 일본 서기(書記)에 의하면 주전 660년에 신무천황(神武天皇=진무텐노)이 일본의 최초의 천황으로 즉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村上重良, 『天皇과 天皇制』(東京:東洋出版社, 1988), 74.

¹⁶ 「일본제국헌법」 1, 3조.

와 메이지텐노(明治天皇) 위폐가 안장된 곳에 참배를 하게 하였다. 역시 1905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승리하자 러시아 영토 사할린 섬 절반을 보상으로 받고 가라후토(華太)라 부르며, 이곳 역시 가라후토 신사를 만들고 일본 천황을 숭앙하도록 하였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치욕의 날인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조약을 공포하고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였다. 이미 일본인 마을에는 신사를 설치하였으며, 1912년에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신축하고 1922년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그 후 일제는 각도 도청소재지(道廳所在地)에 신사를 설치하고 매월 1일과 15일은 신사참배(神社參拜)일로 정하고 한국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하였다.

3) 일본 천황신과 싸운 박연세 목사

일제는 천황의 명령이라면서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滿洲國)을 신설하였다. 말이 만주국이지 이미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항일운동을 하는 한국 독립군을 섬멸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 후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곧이어 장로교 총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결의토록 하였다.

이미 총회가 결의했던 내용대로 잘 순응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중일전쟁을 성전(聖戰)이라 말하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지교회 담임목사에게 하달하였다. 일제는 1942년 7월 7일 중일전쟁 5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로 하여금 이날 주일 예배 시 기념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박연세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목포지방은 그날따라 그렇게 더울 수가 없었다. 아직도 한 더위가 오려고 하면 보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해 7월은 더없이 무더운 날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다. 그 무더운 7월 7일 주일,

목포 시내에 살고 있던 양동교회 교인들은 박연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어서 더위도 잊은 채 한국인들의 손으로 건축되었다는 돌집 예배당에 모여와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고등계 형사(高等係 刑事)들도 그 자리에 버티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미 총독부 학무국의 명령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중일전쟁 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라는 공문이 발송되어 있었다. 박연세 목사는 몹시 고민을 하였다. 그는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달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위가 있었다. 그는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이미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었던 일제는 1942년부터 한국 청년들에게도 천황군(天皇軍)으로 지원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이 감사해서 서울 송동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다. 여기에 여성단체들도 애국금차회를 조직하고 황군징집을 위해서 기독교 여성들이 앞장서기도 했다. 여기 회장은 김복유, 간사는 김활란, 송금선, 고헌경, 방신영, 손정규, 유각경, 차사백 등이었다.

1942년 5월 18일 오후 8시 경성 인사정 중앙예배당에서 감리교단 경성교구 주최로 부인 강연회를 열고 징병제 실시에 대한 부인들의 인식을 계몽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분의 강연으로 만당(萬堂)한 청중이 감격 중에 성황리에 마쳤다.¹⁷

이러한 일은 비단 여성들만 행한 것이 아니었다. 역시 1942년 8월 9일 주일 8시에 종로구 인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송동교회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유력한 목사들이 모여 천황의 은혜로 조선반도 청년들도 천황군(天

¹⁷ 「기독교신문」(1942. 6. 3).

皇軍)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었다고 하면서 800여 명이 모여 감사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관계로 천황군이 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였다. 한국교회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제1계명을 어기고 천황을 숭앙하면서 조선 청년들은 매일같이 전선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조선반도의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목포 양동교회에서도 중일전쟁 5주년을 맞이해서 천황군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았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천황군 승리를 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박연세 목사는 그와는 정반대의 설교를 하였다. 어느덧 양동교회는 아래층 마룻바닥과 약간 높은 다락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렇게 무덥던 초여름이었지만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비장한 모습으로 박연세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재판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소화(昭和) 17년(1942년 7월 7일 지나사변(支那事變, 필자주 중일전쟁) 기념일을 당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동일 정오까지 전기 양동교회에서 목포 부 죽교리 124번지 마쯔다(필자주, 한국인으로서 창씨개명, 松田昇)외 40여 명의 교인에게 설교 할 때 “오늘은 지나사변 제 5주년 기념일인 바, 일본은 새 로히 또 미, 영을 상대로 하는 대동아전쟁(필자주,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 과 소련과 교전 중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약육강식(弱肉強食) 전쟁이다” 뜻의 말을 함부로 하여 대동아전쟁의 숭고한 목적을 비방하는 듯한 언사를 함으로써 시국에 대한 조언비어(造言飛語)하고…….¹⁸

¹⁸ 昭和 19年 2月 17日 박연세 목사 지방법원 판결문.

박연세 목사는 대동아전쟁을 약육강식의 전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지켜보던 일본 고등계 형사는 그의 설교 내용을 듣는 순간 몇 번이고 중단하고 싶었지만 많은 교인들이 박연세 목사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교인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열심히 메모를 하였다. 훗날 이 교회의 예배시간에 참석했던 교인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대질 심문을 하였다. 두 번째의 검거 사유는 천황 숭배에 대한 문제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제5회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소화 17년(1942년 8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경까지 사이에 판시한 교회에서 대성동 김태균(金泰均), 죽동 김동만(金東萬) 등 3, 40명에 대하여 설교 중 신사참배 문제와 신관(神觀)에 여담이 나왔을 때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천황을 제일 숭배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한다는 뜻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¹⁹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유일신 사상에 위배되는 처사이므로 박연세 목사는 과감하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여기 설교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김태균, 김동만은 일제 경찰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갖고 박연세 목사를 제거하는데 한몫을 하고 나섰다. 이 일로 이들에게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일제가 특별히 대우하여 경제적인 도움으로 사업에 번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박연세 목사에게는 일본제국주의 법에 의해 형량이 내려졌다.

¹⁹ Ibid.

법률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소위 중 제1의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한 점은 조선 임시 보안령 제20조에, 제2 정치에 관한 불온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점은 보안법 제7조에, 제3의 천황폐하에 대한 불경의 소위가 있는 점은 형법 74조 1항에 각각 해당하는 바, 보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제42조에 의해 죄의 형별 명칭을 변경하며 이는 형법 제45조 각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적용 동법 47조 본문 제10조에 의하여 제1 중한 불경죄의 형에 병합 가중한 형기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미결 구류 일수 중 90일을 우 본형에 삽입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화 18년(1943)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고이오(越尾鎮男)

조선총독부 판사 하마구치(濱口松世)

조선총독부 판사 가다야마(方山順元, 필자주, 한국인 방순원).²⁰

박연세 목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일본인 고이오, 하마구치와 여기에 한국인 방순원 등의 판결에 의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때 박연세 목사는 신앙의 양심상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동을 취했지만 이렇게 형을 확정시킴으로 이곳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억울하게 형을 받았다는 판단 아래 그는 항소를 하게 되었다. 이미 박연세 목사가 목포형무소에 구속되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자 당시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의 의장이었던 조승제 목사가 목포 양동교회의 청빙을 받고 시무를 하게 되었다. 조승제 목사는 함경도 출신으로 일본 감리교 계통 학교인 아오야마(青山) 학원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

²⁰ 소화 18년 “1943년” 10월 18일 박연세 재판 기록.

열심히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전라남도 지방의 어머니 교회인 양동교회에 부임하였다. 조승제 목사는 친일적인 인사로서 마지막에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을 설립하는 데도 공을 남길 만큼 악역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연세 목사는 정들었던 목포 양동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목포형무소에 있는 동안 교인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사식과 영치금을 넣어 주기도 하였다. 교회 내에서 새로 부임한 조승제 목사를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들은 마쓰다, 김동만(창씨개명은 히가시 東萬總), 김태균 등이었다. 그러나 박연세 목사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사역자로 불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었다.

4) 박연세 목사 순교

지방검찰청에서 항소했던 박연세 목사는 목포형무소를 떠나 대구형무소로 이감하게 되었다. 대구지방은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몹시 추운 지역으로서 사상범들은 거의가 대구형무소에 수감을 시켰다. 대구형무소에 이감되었던 박연세 목사는 대구복심검정찰청(현 고등검찰청)에 출두되어 이미 목포지방 검찰청에서 작성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목포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던 서류를 그대로 놓고 재심을 하고 있었다.

“육체적으로는 천황폐하를 제일 존경해야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존경한다”는 뜻의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두렵게도 지존(至尊=천황)에 대하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위에 있는 듯한 언사를 함부로 함으로써 불경(不敬)의 행위를 한 자이다.²¹

²¹ 소화 19년 “1944년” 1월 20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목포 양동교회 교인 중 검사의 증인으로 마쓰다(松田昇)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김동만(金東萬)의 증인 진술을 받고 1944년 2월 17일 대구복심원에서는 10월의 형을 확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추운 대구형무소에서 사상범이라 하여 독방에서 옥살이를 하던 중 1944년 2월 25일 그만 동사(凍死)하고 말았다.

그가 동사하자 때마침 그의 제자가 목회하고 있던 대구 남문교회 서남동 목사에게 그의 동사 사실을 알렸고, 서남동 목사는 즉시 대구형무소로 달려갔다.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은 모은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서남동 목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하였다. 일단 시신을 인수했던 서남동 목사는 대구형무소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곳에 가서 따뜻한 물을 적시어 시신을 편 다음 목포로 연락을 하고 직접 입관하여 열차 편으로 목포까지 가게 되었다.

서남동 목사는 박연세 목사의 유족들에게 대구에서 동사하게 된 배경을 소상하게 알려 주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박연세 목사의 사상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천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말에 놀라 죽일 결심을 하고 간수부장(현 교도관)이 독방에 있는 박연세 목사 감방에 들어가 마루 짝을 한 칸씩 비워 두고 뜯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밤만 되면 그 감방에 찬물을 방바닥에 흘러내리게 하여 결국 감방은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박연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구형무소에서 장엄한 순교를 하였다.

4. 박연세 목사와 3·1운동

1) 박연세 목사와 군산 영명학교

박연세는 1883년 김제군 용지면 신사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전킨(전위림) 선교사

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게 되었으며, 박연세는 1902년 전킨 선교사가 설립한 군산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보통과와 고등과를 이수했던 박연세는 김제군 백구면 유강리에 김해 김씨 문중에서 운영하는 신광학당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유강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부친에게 전도했던 전킨 선교사, 군산 영명학교 설립자인 전킨 선교사가 1904년 4월 전주에서 선교활동으로 인한 과로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다. 이러한 관계로 박연세는 전킨 선교사를 직접 만난 일은 없었지만 그의 사상에 대하여 군산 영명학교와 남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2) 익산 남전리교회와 3·1운동

이러한 소식을 접했던 박연세는 전킨 선교사의 뒤편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굳게 다짐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가 설립했던 전북 익산군 오산면 남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전킨 선교사의 밀알의 사상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 일로 남전리교회는 후에 민족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기도 하였다. 실질적으로 이 교회 청년이면서 군산 영명학교 수학교사였던 문용기(文容基)는 익산지방 3·1운동의 주모자가 되어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양팔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문용기는 기독교 신자로서 전라도 군산항 교사였다. 마침 4월 초순 이리역에는 1만여 남녀 군중이 모여 독립운동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일제의 수비병들은 급히 출동하여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검을 휘두르고 발포를 하였다. 그러나 용기는 태연자약하게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외병은 태극기를 잡고 있는 용기의 오른팔을 칼로 내리쳤다. 그러나 용기는 굴하지 않고 다시 왼손으로 태극기를 붙들고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자 외병들은 용기의 왼쪽 팔도 내리쳤다. 두 팔을 내리찍힌 용기는 그래도 용기

를 내어 몸으로써 태극기를 받치고 서서 군중들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재촉하였다. 무자비한 외병은 칼을 들어 용기의 심장을 찌르기로 물들여 놓고 말았다. 용기는 쓰러지면서도 “여러분여, 여러분여, 나는 죽어 지하에서라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돕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숨을 거두었다.²²

이리 독립운동 사건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도 영원히 남길 사건이 되었다. 문용기는 목포에 있는 왓킨스 중학교(현 영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산 영명학교(현, 군산제일고등학교) 수학교사로 활동을 하였다. 그가 졸업했던 왓킨스 중학교는 배유지 선교사가 1903년에 설립한 학교였으며, 박연세 목사는 양동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영흥학교 채플과 성경과목을 가르친 일이 있었고, 문용기와는 군산 영명학교 교사로 있을 때 자주 만난 일이 있었다.

3) 박연세 목사와 3·1운동

박연세는 군산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국사와 한문을 담당했던 교사였으며, 군산 구암교회 시무장로이기도 하였다. 그가 군산지방의 3·1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된 동기는 군산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했던 제자 김병수라는 학생과 연관이 있다. 김병수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약국에 근무하고 있던 이갑성(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의 연락을 받고 군산에서도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해서 김병수는 2월 26일에 군산 영명학교에 찾아와 은사 박연세 장로를 만나게 되었다.

김병수는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독립선언서 99매를 내놓고 군산에서도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

다. 그의 뜻을 알았던 교사 박연세는 즉시 남학생들을 자신의 방에 불러 모아 놓고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 박연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은 군산에서도 3·1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쳤다. 먼저 박연세는 교사인 이두열(李斗烈), 김수영(金洙英), 고석주(高錫柱), 성경현(宋正憲) 등과 의논을 하였으며, 다시 이러한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재학생 중 조옥초(趙玉肖)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접선을 하였다.

박연세와 이두열 등의 교사들은 조옥초, 전세종(田世鐘), 김영후(金永厚), 송기옥(宋基玉) 양기철, 전세종, 김영후, 이도준, 홍천경, 고준상, 유복섭, 오한길, 강규언, 강인성 등을 기숙사에 불러 놓고 밤새도록 함께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였다. 이 일은 다시 확산되어 멜본딘 여학교와 그리고 군산 구암병원에 있는 사무원인 양기준, 유한중, 김창윤, 양성도, 안경태, 홍원경, 임병율, 이진규, 김준실, 송기주, 이재근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리고 군산개복교회와 구암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합세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6일 군산 장날을 기해서 만세를 부르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일본 경찰이 하루 전날인 3월 5일 영명학교를 급습하고 주모자인 박연세를 비롯해서 10명을 체포해 갔다. 이러한 광경을 보았던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 학생들이 학교 비상종을 울리면서 운동장에 모여 “우리도 같이 잡아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때 일경들은 총을 들고 위협 사격을 가했지만 학생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계속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구암병원 사무원들과 학생들이 군산 시가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시내에 진입하자 군산보통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어느덧 500여 명이 모여 들면서 계속 군산경찰서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군산경찰서 앞으로 향해 시위하는 군중에 놀란 군산경찰서에서는 이

²² 朴殷植, 『朝鮮獨立運動之血死』(東京:平凡社,昭和 48), 119.

리(현 익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헌병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위 군중들은 이리 헌병대가 착검을 하고 군중을 향해 위협을 가하였지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계속 전진해 나갔고, 이중 일본 헌병대에 의해서 46명이 구속되었다. 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던 이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조서를 받고 고문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일본 헌병대가 우리를 구속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였다.

여기에 군산 보통학교 학생들은 자극을 받고 학생 중 70여 명이 자퇴서를 일본 교장 앞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완전 소각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군산 시민과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에 3월 30일 밤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등불 행진을 벌였고, 구속자들의 전면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월 31일 검속된 사람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 공소하여 형량이 많이 감소되었다. 당시 영명학교 전문부 학생 강문호(康文昊)는 대구 복심원에서 “남의 나라 뺏은 강도들이 제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웬 말이야”고 하여 1년 6월 형량을 올려 선고받았다.²³

군산지방의 3·1운동 주모자로 낙인이 찍혔던 박연세 교사는 사전 모의 및 배후 조종자로 몰려 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그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원에서 2년의 선고를 받고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 외에 같이 참여했던 1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역시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여기에 서울과 군산, 이리를 오가면서 연

락을 취했던 김병수는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3개월의 선고를 받았다.²⁴

5. 박연세 장로 신학교 진학과 목회

1) 박연세 장로 신학교 진학

박연세는 군산지방의 주모자라 하여 2년의 형을 받고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였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 교사로서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출감 후 평양에 있는 장로회신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선친이 설립했던 구암교회 장로로 시무 중 3·1운동에 가담하여 비록 옥살이를 하였지만 출감 후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면서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다. 당시 평양에 있는 평양장로회신학교는 4개(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에서 연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선교부에서 파송한 교수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박연세 장로가 평양장로회신학교(일명 평양신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3·1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출감 후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관계로 자연히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에 모이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새벽기도회에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일로 박연세도 자연히 이 학생들 틈에 끼여 기도하면서 수업을 받았다. 이때 신학교의 수업과정은 3년이었기에 박연세도 다른 신학생과 함께 목회에 필요한 모든 수업을 이수하고 1925년 3월에 제18회 졸업생으로 25명이 졸업을 하였다. 군산에서 평양을 오르내리면서 3년간 공부한다는 것은 보통 소명의식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구형무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했

²³ 『제주선교70년사』(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8), 45.

²⁴ 群山地方 3·1運動裁判記錄.

던 것을 지키고 평양장로회신학교 졸업장을 들고 교문을 나섰다.

2) 첫 목회지

박연세 장로는 전북노회 추천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였기에 졸업하자 곧 전북노회 소속으로 돌아왔다. 이미 신학교는 3월에 졸업을 하였기에 봄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회 임사부에서 그를 청빙한 서류를 검사한 후 가을노회에서 전북노회 군산동북부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임사부에 헌의되었다.

동련교회와 고현교회에서 박연세 씨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옵기 5월 3일에 장립하였사오며…….²⁵

황등 동련교회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에 있었고, 고현교회는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는 목사가 귀한 때인지라 박연세 목사는 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황등 동련교회와 익산 고현교회를 오가면서 목회를 하였다. 익산 고현교회는 익산 시내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농경사회였기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박연세 목사는 두 가난한 교회를 오가면서 설교도 하고 또 때로는 심방도 해야 하는 등 바쁜 초년병 목회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두 교회가 다 부흥 성장하였다. 비록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실력이 어느덧 전남 목포지방까지 알려져 전남지방에서 제일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양동교회의 청빙을 받고 1927년 1월 전북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부임을 하게 되었다.

역시 박연세 목사의 영력을 알았던 목포 양동교회 교인들은 그를 대대

적으로 환영을 하였지만 정들었던 박연세 목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두 교회는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연세 목사나 두 교회 교인들은 그의 사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목포로 보내기로 하였다. 목포 양동교회는 과거 3·1운동 당시 목포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관계로 박연세 목사의 부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6. 목포에 부임한 박연세 목사

박연세 목사가 부임할 무렵 목포지방에는 교회가 양동교회 하나뿐이었다. 그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동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죽동교회를 분립해 주었으며, 다시 연동교회를 분립해 주었다. 그리고 박연세 목사는 목포선교부가 철수하자 선교부에서 운영했던 달 성경학교와 사경회를 인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여기에 목포에는 선교부가 설립한 두 남녀 미션 학교가 있었던 관계로 두 학교의 채플과 성경과목을 가르치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여기에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모두 철수해 버렸다. 이 일로 사경회나 달 성경학교 개설 문제는 항상 박연세 목사의 몫이었다. 그리고 두 미션 학교는 일본 경찰이 적산이라 하여 목포 영흥학교는 신안군 암태면 지주인 문재인 씨가 학교를 인수하여 목포 문태중학교라고 이름을 변경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목포 정명여학교는 목포시가 인수하여 목포여자상업학교로 변경을 하고 문을 열었다.

이미 그는 목포에 와서 양동교회 창설자인 배유지 선교사 부인이 순교한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일본 천황신과 함께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그는 목포를 떠나 1944년 2월 25일 시신으로 돌아와야 하는 슬픈 일을 만나게 되었다.

²⁵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제17회 회록」(1925), 19.

한국 장로교회는 1943년 5월에 해산을 당하고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을 만들면서 교단 본부에 통리는 채필근(佐川彌近) 목사, 부통리는 김응순(新森一雄) 목사였다. 총회는 의장에 조승제(趙村昇濟) 목사, 부의장에 김진수(金城珍洙), 서기에 김종대(金子鍾大) 목사였다. 바로 조승제 목사는 의장으로서 박연세 목사가 목포형무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철저하게 일본 천황을 숭앙하면서 목회를 하였다. 전남교구(노회를 교구로 불렀음)로 이명 오면서 전남교구장을 역임하였다.

여기에 목포 양동교회에서 개척했던 목포 연동교회에서는 이남규 목사가 목회를 하였다. 그런데 이남규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하여 전남교구장인 조승제 목사로부터 목사 면직을 당하고 목회지를 잃고 낙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인 1945년 8월 15일이 되자 조승제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으며, 이때 목포 연동교회에서 면직을 당했던 이남규 목사가 이 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그 후 조승제 목사는 일부 친일에 함께 협력했던 교인들과 함께 목포 시내 일본인 적산 여관을 인수하여 목포 남부교회를 설립하여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그 후 그는 무안읍교회로 이동하여 목회를 하였다. 그는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 아들 조홍래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아버지 조승제 목사의 친일행각을 아들이 대신 사죄하였다. 그 후 그는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계속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조홍래 목사의 아들인 조진영 목사는 2003년 7월 서울 향린교회에서 부임하여 8·15광복절 기념주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조승제 목사의 죄과를 용서해 달라고 참회의 설교를 했다고 일간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앞으로 일제에 철저하게 협력했던 친일의 역사들에 대하여 스스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7. 맺는말

박연세 목사가 순교하기 이전 군산 영명학교는 3·1운동 주동자로 몰려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군산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박연세 등 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박연세는 군산지방 3·1운동 책임자라 하여 대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였으며, 석방 후에는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배우고, 졸업 후 전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익산 고현교회와 황등 동련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927년 목포 양동교회로 목회지를 옮겼다. 그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유달산 산정에 올라가 민족의 해방을 외치기도 하였으며, 변절해 가는 한국교회에 순전한 신앙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었다.

옥사를 당했던 그의 시신은 목포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87년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로 국가가 최고의 훈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목포공동묘지에 있던 그의 시신은 1990년 대전 국립묘지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서편에 안장되었다.

영원히 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계속 배출되어 믿음의 선진들이 남기고 간 순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A Critical Study of the Arab States from Political Perspectives
Since the Arab Spring of 2011

■ 전호진 Jeon, Ho Jin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석사
 - 풀러 신학교 선교학박사
 - 웨일스 대학교 철학박사
-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총장



2011년 2월은 수많은 아랍 국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교가 국교이거나 국가의 공식 종교로서 다른 종교는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당한다. 우리나라나 서구 등 선진국들은 종교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다수인 나라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유엔인권헌장 18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슬람교 국가에서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종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선택(communal decision)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공산주의가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라면, 이슬람은 개인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집단적 종교이다. 이러

한 가치관이나 교리는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없다.

현대 국제정치는 종교를 떠나서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와 정치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새뮤얼 헌팅턴이 말한 문명충돌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충돌은 사실 종교충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랍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리고 있으며, 중동과 경제, 학술, 종교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한국인 무슬림 3만 5천 명, 외국인 무슬림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추산).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한국군도 이라크에 파병을 함으로 중동국가에 우리 군이 처음 파견되어 군대가 국제화를 경험하였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함으로 군대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특히 한국군대는 세 종교 간에 약간의 갈등과 경쟁이 있지만 비교적 평화적 공존을 하는 모범적 국가로 자부할 수 있다. 극단적 종교집단이 종교적 목소리를 높이면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중동의 현실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2년 8개월 전 아랍 대부분의 국가에서 백성들이 배고픔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봉기하였다. 그러나 독재와 부정부패의 권력자들이 물러나자 의외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교 원리주의 집단들이 준비나한 듯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무서운 독재자로, 부패 집단으로 백성들로부터 규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설 조니 오웰의 『1984년』을 연상한다. 독재자를 몰아내고 나니 더 무서운 독재자가 등장한다. 이집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시리아 내전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군이 철수한 이라크는 매월 1,000명씩 종파 간의 테러로 죽어간다. 우리는 남의 종교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

으로 볼 때 아랍은 종교와 지도자를 잘못 만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한 일본학자도 아랍 제국의 정치체제는 “비민주주의 체제에 속하고, 더 분석하면 권위주의 체제가 특징”이라고 하였다.¹ 이러한 비민주주의 국가에 아랍의 데모나 혁명이 정치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정치나 경제가 후진국 국가들의 모범적 국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1. 아랍 스프링: SNS의 위력

아랍 스프링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서비스의 덕분이라고 말한다. 소셜 네트워크 하면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말한다.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를 이루지만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매개체 노릇을 한다. 매스미디어 전문가 야마모토 타츠야는 인도네시아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인터넷을 통제한다.² 그럼에도 아랍에서 인터넷은 민중 봉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체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튀니지 봉기에 불을 붙인 것은 한 여대생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우연히 한 청년이 경찰에게 매 맞다가 죽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서 기인하였다. 그것이 페이스북에 전달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여학생은 자신이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알 자지라 방송 기자에게 고백하였다.

소셜 네트워크는 국경이 없다. 서구 학자들은 인터넷이나 소셜 네

트워크가 인권,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반드시 유익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

튀니지에서 경찰에게 맞아 죽은 청년은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med Bouazizi)로, 거리에서 채소장사를 하였다. 그는 대학원 졸업생이지만 직업이 없었다. 2010년 12월 17일 한 여자 경찰관이 그에게서 장사를 못하게 채소를 빼앗아 갔다. 그래서 항의하자 여자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화가 난 그는 휘발유를 몸에 끼얹어 자살하였다. 그때 근처 아파트 2층에 사는 여학생이 이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그것은 요원의 불길처럼 아랍을 휩쓸고 말았다. 그 휘발유가 ‘아랍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트위터 혁명이라고도 한다. 재스민 혁명이라고도 한다. 재스민은 튀니지의 국화이다.

이슬람에서 자폭 테러는 죄가 아니라 도리어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그 청년의 자살은 분명히 죄다. 그는 튀니지 백성들의 분노와 좌절감에 불을 지른 셈이다. 23년간 통치한 대통령 벤 알리(Zine al-Abidine Ben Ali)는 사우디로 도망가고 말았다. 데모대들은 이어서 구정권의 권력자들을 축출하였다. 그들의 슬로건은 “그들은 우리의 돈을 훔쳤다”였다.

필자는 튀니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중동을 여행하였다. 튀니지 혁명이 일어난 이틀 후에 카이로에서 중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여성 정치학 교수로부터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 여교수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래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튀니지에서는 일어났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데모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도 3일 후 데모가 일어났고 무바라크는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이집트 봉기도 튀니지와 너무나 유사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

¹ 山本達也,『アラブ諸國の情報統制』(慶應義塾大學出版, 2011), 25.

² 山本達也,『アラブ諸國の情報統制』(慶應義塾大學出版, 2011), 1-4.

한 청년의 분신 자살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고 말았다. 프랑스 작가 벤 줄렌은 『아랍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저서에서 아랍 청년들에게 혁명기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정당지도자나 야당 정치가 선동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라고 말한다.

2. 청년 혁명?

아랍 스프링을 청년 혁명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의 분노가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아랍 연구자들은 아랍의 청년들에게는 ‘혁명기’가 없다고 말한다. 속된 표현으로 “해봤자 그게 그게다”라는 식의 개념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룻밤의 무정부보다 수백 년에 걸친 억압이 더 낫다”는 아랍 속담도 인용한다. 2012년 말 「타임」지 특별 부록은 아랍 청년들의 마음에는 혁명정신이 없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억지로 모른 채하였다.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가 50년대와 60년대 데모를 해서 독재자를 추방하였지만 새로 등장한 지도자들 역시 다 독재자로 군림한 역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집트 무바라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런데 분노가 폭발하였다. 카이로 타하히르 광장의 청년 데모대는 빵, 자유, 정의를 달라고 외쳤다. 먼저는 빵이었다.

아랍의 청년 문화가 혁명을 주도하였다.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권력자들의 부패도 크게 작용하였다. 권력자들이 많은 국가재산을 훔쳐 외국에 빼돌린 것에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서구에 무려 69백만 불의 재산을 빼돌렸고, 무바라크 가족들의 재산은 7백조 달러라고

³ Vivienne Walt, “The hunt for Arab dictators’ hidden loot,” TIME, July 18, 2011: 40-41.

한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프랑스, 스위스에 엄청난 재산을 숨긴 것이 탄로났다. 이것들은 드러난 은익재산에 불과하다.³

카이로 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는 청년문화를 인터넷 세대, 페이스북 세대, 이적세대라고 정의하였다. 아랍 청년들 5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54%가 TV 뉴스를 접한다. 그런데 67%의 청년들이 생활비를 걱정하고, 30%의 청년들은 가능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 경제적 한계를 느끼고, 정치에 대하여는 공포를 느낀다. 이것을 정치 공포증이라고 한다. 돈을 벌어 보았자 식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무려 30%에서 50%를 넘는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식비부담이 아주 적은 나라로 6-15%로 본다. 22개 아랍 국가 전체 인구 3억 5천 만 가운데 30세 이하 청년 인구는 60%인데 실업률이 무려 40%나 되었다. 그래서 부모들 밑에 산 지 오래된다. 결혼은 사치스러운 언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절망에서 탈출을 약속하는 급진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데올로기가 인기가 있다.⁴

중동의 30세 미만 인구를 나라별로 분석하면 모로코는 57%(4천만 인구 중), 리비아 59%(6.4백만), 튀니지 52%(10.5백만), 이집트 60%(81.1백만), 요르단 68%(6.2백만), 사우디 57%(27.4백만), 예멘 75%(24.1백만), 시리아 65%(20.4백만), 이라크 70%(31.7백만), 바레인 50%(1.3백만)이다. 파리드 자카리아에 의하면 중동 인구 60%가 30대 이하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루는 정치 형태는 집단적 억압과 집단적 뇌물공세로 단정한다.

그러나 일부 아랍 국가들은 청년들이 일하기를 기피하여 부득이 외국 노동자를 수입한다. 사우디는 정부가 20세까지는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주는 ‘석유복지국가’이다. 그러나 20세가 넘으면 일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일하지 않아 실업률이 높다. 요르단이나 아랍 에미리트, 카

⁴ “The New Middle East: After the Arab Spring, a different world unfolds,” TIME, March 10, 2011: 15.

타르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랍 국가의 실업자 통계는 서구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랍 국가에서 청년들은 과거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저항이나 데모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슬람에서는 정치가에 대한 저항은 곧 알라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데모는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한다. 그래서 체념이 청년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아랍 스프링에서 청년들은 용감하게 일어섰다.

3. 데모의 직접적 동기와 간접적 동기

우리는 아랍 스프링을 봉기로 해석한다. 그러면 봉기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가? 학자들이나 정치 기자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도화선은 인터넷 혹은 SNS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부도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2009년 이란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란의 데모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셋째, 청년실업이 특히 큰 원인이 되었다. 아랍 스프링은 빵을 달라는 데서 시작하였다.

넷째, 장기독재와 부정부패이다. 이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다섯째, 언론의 자유, 인권유린 등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한 데 대한 불만이 컸다. 복종을 너무 강요당하였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내부로부터 민주화 요구가 있었다.

여섯째, 외부로부터 압력이다. 특히 미국은 친미의 아랍 국가를 가까이하면서도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라크 전쟁은 중동에 민주화 도미노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지적해야 한다. 아랍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 아랍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등국민이라고 자부한다. 사우디에서 한국회사에 음식을 납품하는 한 한국인 청년이 함께 일하는 사우디 청년에게 “너희들은 일등국민이라면 한국인은 특등국민”이라고 조크하였다고 한다. 이슬람이 최고 종교이므로 이슬람을 낳은 나라는 최고라는 자부심, 돈이 많다는 자부심이 작용하는 것 같다.

자존심이 강한 무슬림 세계

사람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잘못된 자존심은 교만이 된다. 이슬람교 세계는 자존심이 강하다. 아랍 국가는 반미감정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랍 청년들 70%는 미국에 가려고 하며, 많은 아랍 사람들이 미국과 서구로 갔고, 또 가려고 미국대사관에 줄을 선다.

아랍 국가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우월감이 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념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자 이슬람교 지도자인 호메이니는 이미 오래전에 이슬람이 서구문명보다 우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슬람 문명이 더 우월한 이유는 서구문명은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다. 서구는 오직 한 가지 차원, 곧 물질세계만 생각한다. 서구는 무엇보다도 항상 부(wealth), 과학, 군사 및 기술에서 진보만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논리에서는 진보는 다른 차원을 고려한다. 이슬람은 과학, 정의, 공공복지, 경제, 국제관계, 정치, 기도 등 모든 문제에서 영적 차원, 즉 신적인 차원을 더 중시한다.”⁵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세속적, 물질적 종교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자유주의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자유주의 기독교가 영적 차원보다는 현세적 물질세계에 더 관심을 두었

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세속주의를 더 부추겼다.

이념적으로 아랍 국가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 2차 대전 이후 대부분 아랍 국가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더 가까이하여 경제는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였다. 그러나 구 소련의 붕괴로 아랍을 지원하였던 공산국가들의 몰락은 아랍 국가에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도리어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돌아서고 말았다. 아울러 중동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아랍 국가들은 큰 석유소비국인 서구나 미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과 자기들 국가의 독재권력의 지지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랍 스프링은 반서구·반미 감정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만이 참 종교이고, 기독교나 유대교는 신이 계시한 진리를 왜곡하였다고 믿는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개종(conversion)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교로 돌아선 것을 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복귀(revert)라고 말한다. 태초에 이슬람이라는 참 종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만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은 복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번 케냐 백화점 테러에 영국인 백인 여자가 테러리스트로 가담하여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서양 언론은 그녀가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고 말하자 무슬림들은 복귀라고 강조하였다.⁶

⁵ Akbar Ganji, "Who Is Ali Khamenei?" in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3: 38-40.

⁶ Khadij Magardie, "Converts in search of a cause?" The Phnom Penh Post, September 30, 2013: 17.

한 이슬람 전문가에 의하면 중동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기술의 진출은 중동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고 말한다. 중동이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상지로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 비길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 한국이 기술과 경제에서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두 나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란이나 다른 중동 국가에 발전소가 고장이 나면 한전기술자들이 고쳐 주어야 한다.

4. 아랍 스프링 이후 선거

튀니지의 한 청년의 분신자살은 아주 빠르게 이웃 나라로 확산되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자들이 물러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큰소리를 치면서 독재를 하고 부정축재를 많이 한 카다피는 데모를 한 사람들에게 죽고 말았다. 아랍 스프링 이후 많은 나라에서는 선거가 치러졌다. 백성들이 오랜만에 자기들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하였다. 봄이 온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 무르시가 대통령이 되어 백성들은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1년 만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의 개입으로 권좌에서 내려앉았다. 무슬림 형제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구속되고 그들의 죄상이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야말로 그들의 권력은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혁명이 일어난 아랍의 많은 나라들은 도리어 겨울바람이 불고 있다. 동구는 자유화 물결 이후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랍 스프링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랍 지식인 아미지 비사라(Azimi Bishara)는 아랍 스프링을 1950년대 이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겨울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아랍 지식인들은 아랍 스프링 전에는 한 사람의 카다피만 있었는데, 지금은 "카다피가 백 명이나 된다"고 자조한다.

2012년 「타임」지 특별부록지 「The New Middle East: After the Arab Spring, a different world unfolds」(새로운 중동: 아랍 혁명 이후 다른 세계가 열리다)는 아랍 봉기는 몇몇 독재자만 하야시킨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서로를 보는 눈을 바꾸었다고 분석한다. 현재 아랍의 사태를 『1984년』년에 빚대기도 한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짐승들이 힘을 뭉쳐 폭군 짐승을 몰아내고 나니 더 무서운 ‘큰 형님’ (Big Brother)이 등장하여 독재를 한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세트 존스는 독재국가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로 나가게 된다는 학설과, 독재자를 무너뜨리면 자유가 온다는 학설이 중동에서는 아직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⁷

5. 아랍의 불확실한 미래

이집트에서 데모가 한창일 때 많은 이집트 시민들은 미래를 더 염려하였다. 그 우려는 적중하였다. 독재자들은 야당을 키우지 않아 정권을 이양받을 만한 지도자도, 조직도, 돈도 없었다. 다만 이슬람 정당이 유일하게 준비된 야당이였다. 그러나 이슬람 정당은 민주주의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구에서처럼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 시스템과 경험도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왔지 공정한 국민 투표의 산물이 아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투표는 대체적으로 힘 있는 지도자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표로 동의해 주는 요식행위일 때가 많다. 그래서 항상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런 선거가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이슬람 국가의 헌법은 민주화를 어렵게 한다. 많은 무슬림 국가들의 헌법에서 이슬람은 국교이다. “이슬람은 법의 근원이다”라고 명시한다. 정치는 종교의 하부구조이다. 이란은 이슬람 최고지도자가 국가가 결정한 법이 알라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할 정도로 대통령 위에 군림한다. 그러면서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것은 상호호순을 드러낸다. 즉 신권을 앞세운 비민주주의이다.

6. 시리아 내전

아랍 스프링 이후 가장 불행하게 된 나라는 시리아이다. 시리아 역시 2년 9개월 전 한 작은 도시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소리쳤다. 그것이 시리아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군대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아사드 대통령은 독재자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 알라위라는 이단으로 취급되는 아사드는 항상 수니파 무슬림들의 저항을 받아 왔다. 1983년 아버지 아사드 때 한 도시에서 수니파가 강경 데모를 하자 탱크와 비행기로 무자비하게 진압, 적어도 20만 명 이상 죽었다.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이미 10만 명 이상 죽었고 난민이 수백만을 넘는다. 나라가 정부군과 반군으로 이미 반토막 났다. 시리아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0일 시리아 외무부 장관의 유엔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그의 유엔 연설을 요약하면(BBC news) 다음과 같다.

- 1) 시리아는 내전(civil war)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이다. 83개국에서 알 카에다 테러분자들이 왔다.
- 2) 화약무기는 이웃 국가들이 알 카에다에게 제공했다.
- 3) 테러리스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 4) 유엔은 화약무기 조사를 마치지 않았다. 시리아는 유엔 결의를 존중

⁷ Seth G. Jones, “The Mirage of the Arab Spring: Deal With the Region You Have, Not the Region You Wan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60.

한다.

5) 이스라엘은 67년 시리아의 영토 골란 고원을 점령하였다. 돌려주어야 한다.

6)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시리아 내전은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교 종교 간의 내전이라고 말한다. 즉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리전이라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시아파의 이라크와 이란은 아사드를 경제와 군사무기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반면 반군들은 대부분 수니파이며 알 카에다 등 강경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시리아를 강성 이슬람 국가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열심히 반군을 돕고 있다.

서방과 미국이 반인륜적 살상을 하는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반군을 돕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반군이 집권한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더 무서운 반민주, 비인권적인 이슬람 정부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반군들 역시 무자비한 살상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거나 죽이고 있다.

7. 무슬림 형제단의 득세

무슬림 형제단은 1920년대 이집트에서 등장한 일종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슬람교만이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자부한다. 이슬람 국가들이 서구에 비하여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철저한 알라의 계시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철저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독교를 거부한다.⁸

프랑스 지식인 벤 줄렌은 저서 『아랍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에서 무슬

림 형제단은 패배한 것으로 말한다.⁹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덕을 챙긴 집단이다. 지금도 아랍의 미래는 이들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조직이 현대 이슬람 원리주의의 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란의 와중에 이들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일부 이슬람 강경파들이 창녀촌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무슬림 사회에서 매춘은 안 된다”고 외치자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켰다.

무슬림 형제단들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집트에서 데모가 한창일 때 사태를 관망하던 알 카에다가 2월 21일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민주화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테러만이 아랍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해 온 알 카에다가 그동안 이집트의 비폭력 시위에 침묵했었다. 알 카에다의 2인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민주정부는 태생적으로 반종교적이다”라며 이집트는 그동안 소홀히 한 이슬람의 가치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알 카에다 아라비안 반도 지부가 출간하는 신문 「사다 알말라함」(전쟁의 메아리)은 사설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튀니지는 속히 신의 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이 제1당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바라크 시절에도 20% 인구의 지지를 받았던 제일 강한 야당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념, 조직, 정치 경험에다가 한동안 인기마저 있었다.

⁸ 이 주제에 대하여는 필자의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서울: SFC, 2002)를 참조할 것.

⁹ 타하루·벤=젤룬, 『아랍의 봄은終わらない』, 齊藤可津子 訳(2011), 9-10.

8. 성과 속이 대결하는 아랍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정치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이슬람교 내부의 분열만 더 가속화되었다. 분열을 요약하면, 1)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것이 더 깊어졌다. 2) 나라마다 성과 속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3)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 증가하고 있다. 4)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아랍 국가와 형제단을 반대하는 국가 간의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아랍 에미리트는 이집트가 무슬림 형제단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 때 많은 원조를 하였으나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하면서 원조를 중단하였다. 지금은 다시 원조를 재개하였다. 5) 아랍 국가들은 주로 다인종 국가이다. 그러나 아랍 스프링 이후 한 나라 안에서도 인종갈등과 지역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리비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랍 스프링 이후 이슬람 내부가 분열함에도 불구하고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인들은 국가의 정체성보다 무슬림의 자부심을 더 강하게 가진다고 한 이슬람 전문가는 분석하였다. 그래엄 베너맨(Graeme Bennerman)은 2012년 로이터 통신과의 대화에서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세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아랍인이라는 민족주의보다는 자신들이 이슬람 교도라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랍의 봄 이전까지만 해도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아랍 민족의 집단적 생존과 번영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전체 아랍인 중 극소수에 불과했던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아랍의 봄으로 인해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시아파, 드루즈교, 알라위파 등 분리주의 이슬람 교파도 수니파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생존이 어렵다. 최근 중동의

변화는 과거의 아랍 민족주의를 벗어나 보다 더 확실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는 유독 최근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진화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¹⁰

그의 분석은 정확하다. 아랍 세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랍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들이 원하는 이슬람 국가는 호메이니 식이나 탈레반 식의 강경 신정주의 국가가 아닌 세속적 이슬람 국가이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랍과 중동국가에서는 이슬람 신정국가를 주장하는 강경 무슬림 세력과 세속주의자들 간의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속주의자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철저히 배격한다. 너무 율법주의적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은 같은 무슬림이지만 싫다는 것이다. 2004년 요르단 정부는 “Amman Message”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이슬람은 평화와 사랑과 관용의 종교이며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 따라서 이슬람은 폭력을 권장하고 테러를 제도화하는 종교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아랍 국가도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명 이후 요르단 정부는 바로 이슬람 과격주의의 테러를 맞고 말았다.

온건 튀니지 야당 지도자 초크리 발레이드는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암살당한 것으로 백성들은 생각한다. 그 일 이후 프랑스 내무장관 마누엘 발은 암살을 이슬람주의적 파시즘(Islamist fascism)이라고 비난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튀니지 주재 프랑스 대사를 불러 프랑스가 튀니지에 내정간섭을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프랑스 장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보에 확신을 가진 것 같다. 흥미롭게도 이슬람적 운동은 권력

¹⁰ <http://blogs.reuters.com/great-debate/2012/10/11/the-key-to-understanding-the-arab-spring>

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근본교리의 한 부분이다. 하나의 사상학파로서 무슬림 형제단은 파쇼주의가 강하여 배타성을 가진다. 형제단의 어느 개인도 자기의 견해를 말할 수 없다. 반대자는 추방당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이 집단은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슬림 형제단이 파쇼주의라는 것은 프랑스 대사의 주장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완전한 현실이다. 어떤 범아랍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랍 국가를 후퇴시키려는 국제적 음모로 본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윤리와 복장을 강요하여 세속주의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인구 1천만 명 중 98%가 무슬림인 리비아에 서구식 자유가 이미 유행하였었다. 해수욕장에서 여자들은 비키니를 입고 슈퍼에서 술이 판매되고 바에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혁명의 요란한 후유증으로 나라가 무리하게 탈세속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한다. 전 튀니지 민주여성단체 회장 체리프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계한다. 일부 대규모 데모대들은 “모스크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종교가 정치를 망쳤고, 정치가 종교를 망쳤다”고 외쳤다. 르네상스라는 이슬람 정치운동단체는 한 폴란드 신부가 죽은 것을 애도하였고, 말레이지나 터키식 관용과 온건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단체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과 가깝지만 튀니지에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너무 자유에 취하여 자유를 잃을 수 있다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통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혁주의자가 외친다.

이러한 종교적 충돌은 튀니지, 이집트 등 다른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이란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였다. 사우디의 종교경찰은 대단히 무섭다. 과거에는 기도시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매질을 하고, 이란에서는 남자들이 반소매로 팔을 노출하여도 경찰이 뒤에

서 매질을 하였다고 한다. 터키도 지금 데모가 계속되고 있다. 수상 엘도간은 터키를 온건하면서도 철저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많은 군 장성들과 언론인들을 구속하였다. 인권단체가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의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전 이후 이라크의 상황은 이 사실을 반영한다. 현재 이라크 내 기독교인들이나 투르크멘인, 기타 소수파에게 요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형편이 과거 독재자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 때보다 더 못하다고 대답한다. 그들에 대한 위협은 사담 후세인 정권 때와 다를 바 없으며, 소수파 및 소수민족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에 오히려 더 잘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아랍 국가도 동일하다.

아랍 스프링 이후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도리어 크게 감소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반미감정이 강한 중동에서 아랍 스프링은 더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대체로 독재, 부패정권인 무바라크 같은 정치권력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다음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관계를 논한다면 과거 중동국가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워 북한과 외교 관계가 더 강하였다. 일부 아랍 지식인들은 한국은 미국 편이라고 싫어한다.

결론

아랍 스프링의 결과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아랍 세계는 현재 분열의 조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이라고 말한다. 이집트의 경우 이슬람 원리주의와 세속주의의 갈등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세속 편이다.

북아프리카도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도리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아랍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 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많은 석유가 도리어 '석유의 저주'가 되고 있다. 소수의 권력자가 석유의 부를 독식하고 있다.

서구나 아시아에서 혁명이 서서히 민주화로 발전한 도식이 아랍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신의 이름을 내세운 신권정치가 민주주의를 추방하고 있다. 그래서 독재를 물리치고 나니 새로운 독재가 등장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들이 혁명을 하이재킹(공중납치)하였다고 외친다. 이집트는 강성 이슬람 국가를 외치는 무슬림 형제단을 세속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및 군부가 하나가 되어 물리쳤다. 기독교도 세속주의와 한편이 된 셈이다. 그러나 무르시를 퇴출시킨 군부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아랍의 젊은이들은 세속주의적 이슬람 국가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더 분노한다. 이들은 과거 이슬람을 잘 믿었을 때 황금시대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슬람에 기초한 황금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다. 아랍이 실패한 것은 참 이슬람을 버리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더 강하게 벌써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 그동안 이슬람 학교는 청년들에게 이것을 주입시켰다. 반면 더 많은 청년들은 세속주의와 이슬람의 조화를 원한다. 이 갈등이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